국감도 못 밝힌 차명계좌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제330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41.37 (-20.74)

코스닥 669.87 (+1.58)

금리(국고채 3년) 1.66 (+0.01)

환율(원·달러) 1186.00 (-0.50)

올려도 걱정, 안 올려도 걱정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여부 18일 결론
인상 땐 한국 등서 외국자금 유출 가속
보류 땐 글로벌 경기불안·불확실성 가중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한국시간으로 18일(금요일) 새벽 3시쯤 판명된다.

연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단기대출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연방기금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0~0.25%로 낮춘 이후 지금까지 7년 가까이 이를 유지하고 있다.

13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반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FOMC에서 투표권이 있는 인사들도 9월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느냐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같이 유례없을 정도로 미국 금리인상에 논란이 이는 것은 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서로 엇갈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사진)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이 경제지표 가운데 핵심은 실업률과 물가수준이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오면서 내세운 현실적인 목표는 실업률 6% 이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2% 수준이었다.

미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 10%대 까지 치솟았다가 양적완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말 이후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5.1%로 연준이 애초 정한 6% 이내 목표치는 물론 정책목표인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반면 금리인상의 또 하나의 핵심 변수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올들어 2%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CPI는 올들어 -0.2~0.2% 수준을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대인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아직 2%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들어 1.6(1월)~1.8%(8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경기상황이 좋지않은 것도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3년 1분기 마지막으로 8%를 찍은 이후 내림세를 지속, 올 1분기와 2분기에는 7%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중국 당국의 수치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중국의 경기하강세는 심상찮다.

중국 당국이 지난 8월10일부터 위안·미 달러 기준환율을 갑작스레 5%가까이 올리면서 중국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는 한층 깊어졌다.

또다른 주요 신흥국인 브라질은 원자재 수요 감소와 함께 국채가 투기등급으로 내려 앉은 상황이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10일 브라질 국채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으로 정크본드 수준인 BB+로 강등했다.

연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섣불리 인상했다가 자칫 국내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신흥국에서는 자본유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면서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에 미국이 마중물을 붓는 악역을 자처하는 꼴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한국 입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걱정, 올리지 않아도 걱정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미 주식시장 등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자본유출이 심화돼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미뤄도 한국으로선 좋을 게 없다. 연준의 금리인상 연기는 곧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금융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강민규 기자 unha@metroseoul.co.kr

'마약사위', '재신임' 대표 이슈된 당대표들

국감은 하는둥 마는둥

집권여당은 당대표의 마약사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고, 제1야당은 문재인(사진 오른쪽) 재신임 정국으로 분당 직전 상황이다.

모두 국정감사에 즈음해 시작된 일들이다. 국민적 관심이 정치 거물들의 수난에 쏠리며 국감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 당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여야 의원들도 국감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 분위기는 상임위로 그대로 이어져 국감 현장은 툭하면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김무성(사진 왼쪽)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마약사위 논란이 불거진 이후 두문불출하다 13일 서울 능인선원 개원 30주년 대법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며칠간 달아올랐던 비판 여론은 조금 식은 상태지만 여전히 김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은 주목받았다. 김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약사여래 좌불상 앞에서 축사를 통해 "약사 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한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동정론에 기댄 발언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 대표가 사활을 걸고 도입을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마약사위 논란으로 김 대표가 추진동력을 잃자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발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이나 비박근혜계 의원들이나 물밑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당장 실시하려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투표는 추석 전으로 연기됐지만 16일 중앙위원회에서 당 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문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소속 의원들에게는 최우선 관심사다. 국감은 2차적인 문제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재신임투표를 국감 이후로 미루자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아예 취소하자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중앙위도 무기한 연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문 대표의 힘을 빼자는 의도로 해석하는 등 당내 혼란은 수습 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Apple, innovation again and Samsung becoming anxious.

애플 또 혁신, 불길한 삼성

애플 아이폰6S 시리즈(왼쪽)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Due to the poor sales figure of smartphone which is under 100 trillion in the first half.

Samsung is trying to turn its fortune around with the launch of new products; Galaxy note 5 and Galaxy s6 edge plus.

However, due to the launch of Apple's Iphone 6s series and I pad pro, there is a concern that Samsung could possibly become the second Nokia.

Samsung is being sandwiched between Xiaomi that is showing a fast growth in low and middle priced market and Apple that is dominating the premium market.

Samsung launched Galaxy note 5 and galaxy s6 with the purpose of keeping up with Apple. Yet, it is predicted that competing with Apple will not be easy for Samsung.

Even though Samsung launched the Galaxy note 5 in August with an improved design and better S pen function, it received negative reviews saying that the smartphone does not really strengthen its strength.

Galaxy note 5 has received attention by selling seventy five thousand devices in three days.Nevertheless, it does not seem like the smartphone is well received in the market anymore as time passes.

스마트폰 실적 악화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100조원을 밑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와 아이패드 프로 등의 등장으로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저가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샤오미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 사이에서 점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해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플러스를 출시했지만 애플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S펜'의 기능과 디자인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갤럭시노트5를 지난 8월 출시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노트만의 특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럭시노트5 시리즈는 출시 3일 만에 7만 5000대를 넘어설 정도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반응은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난민사태를 맞은 유럽이 동서로 갈려 **찬반시위**를 벌였다. 서유럽은 찬성 시위를, 동유럽은 반대 시위로 맞불을 놓은 가운데 유엔은 시리안 난민 100만명 사태를 경고했다.

▲ **애플**이 아이폰 6s와 6s 플러스의 예약주문을 12일 토요일 0시 1분(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기준) 개시했다. 중국에서는 12시간만에 품절됐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에 앞서 무료로 배포된 각종 '**교황 행사 입장권**'이 고액의 '암표'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거부한 윈도우 7·8 사용자들의 PC에도 윈도우 10의 설치파일이 몰래 강제로 다운로드되도록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사회

▲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재신임 정국으로 분당 직전까지 몰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같은 자리에 서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당내 분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 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최근 4년간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취업 청탁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관련,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윤 의원을 고발한 변호사에게 고발을 취하하라는 취지로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규정 등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확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2일 실시하는 2016학년도 **수능**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가 63만1184명으로 2015학년도 64만621명보다 9437명(1.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 현직 **변호사** 53%가 사법 정의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대부분에 인체에 해로운 '화학합성첨가제'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가 전복된 제주 추자도 해역의 너울 관측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밀꽃 흐드러진 봉평의 밤 12일 가산 이효석의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일원에 메밀꽃이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하얗게 피어 가을의 낭만을 선사하고 있다. 이효석(1907~1942년)의 문학세계를 기리는 '제17회 평창 효석문화제'는 13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글로벌TV 제조사들이 **초고화질(UHD) TV**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TV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UHD TV만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다. 고화질(HD) 시대의 흐름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UHD TV 시장까지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 올해로 66회를 맞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17일부터(이하 현지시간) 2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린다. 앞서 15일 예정된 언론 공개 행사에서 이번 모터쇼에 참여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세계 최초 공개 신차(월드프리미어)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을 넘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가 구축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게임을 스포츠 중계방송처럼 시청하는 대표적 형태가 'e스포츠'다.

▲ 삼성전자의 브랜드 체험관 '**삼성 딜라이트**(Samsung D'light)'가 3개월에 걸친 새 단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서초사옥에 재개관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의 '차명주식' 실체를 밝히려 했으나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장 임환수·사진)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국세청은 법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들은 국세청이 법까지 무시하며 재벌 감싸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 추석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14~20일)에는 지난주보다 **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대표 김운철)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6001가구가 공급된다.

▲ 세계그룹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되며 지난 11일 신세계건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34% 내린 5만원으로 마감됐고날 신세계 주가도 2.42%(6000원) 떨어졌다.

▲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공시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금리공시 대상범위이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 등으로 조정되고 은행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도 추가된다.

난민사태에 동서로 갈린 유럽… 찬반집회 몸살

서유럽 '난민 수용 지지' 시위
동유럽 '난민 추방' 맞불 시위
유엔 시리아난민 100만 경고

1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한창이다. 이날 수천명이 집회에 나와 난민 반대를 외쳤고, 같은 장소에서는 찬성 집회도 열렸다. 하지만 동유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난민사태를 맞은 유럽이 동서로 갈려 찬반시위를 벌였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에서는 수만명이 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에 난민 수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국경을 개방하라"거나 "난민들이여 오라"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영국 노동당수로 선출된 제레미 코빈은 난민 환영 시위에 참가해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했다.

대규모 난민 수용 지지 집회는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 스톡홀름, 체코 프라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열렸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약 3만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난민 수용 찬성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페이스북 상에서 주말인 12일을 '유럽 행동의 날'로 정해 난민들을 위한 시위를 벌이자는 캠페인이 벌어진 결과다.

하지만 모든 유럽이 이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난민 수용 지지 여론은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동유럽에서는 정반대로 난민 반대 여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약 5000명이 난민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1500명, 체코 프라하에서 약 800명이 거리로 나와 "난민 추방"과 "반이슬람" 구호를 외쳤다.

서유럽과 동유럽에 걸쳐 있는 독일에서는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난민들의 엄마'로 불리며 난민 문제의 해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고 독일에 도착한 난민들을 환영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비판 세력도 만만치 않다. 이날 함부르크에서도 난민 수용 확대계획을 비판하며 난민을 추방하자는 시위가 열렸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유엔은 시리아 난민이 100만명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리아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관인 야쿠브 엘 힐로는 "시리아에서는 올해 들어 100만명이 집을 떠났고 내전이 잦아들지 않으면 100만명의 난민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는 내전에 이어 이슬람국가(IS)까지 기승을 부리며 절반 이상의 인구가 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넘은 수만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로 조정관은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 시리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리아발 난민열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인들이 자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기회는 여전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열차는 유럽을 포함한 모든 곳으로 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metroseoul.co.kr

아이폰 6s·6s 플러스 예약 개시

중국, 12시간 만에 품절

애플이 아이폰 6s와 6s 플러스의 예약주문을 12일 토요일 0시 1분(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기준) 개시했다. 중국에서는 12시간만에 품절사태를 빚어 중국의 아이폰 바람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예약주문 개시 직후 약 1시간 동안 구매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웹사이트 접근이 제대로 안됐다. 다만 '애플 스토어'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했다.

중국에서는 예약주문 12시간 내에 모든 모델의 초기 물량이 동났다. 재작년부터 중국에서 불고 있는 아이폰 바람이 올해도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예약주문 개시 14시간 후 기준으로 중국 시장용 아이폰 6s나 6s 플러스를 예약주문하려고 시도하면 대기 기간이 각각 2~3주, 3~4주로 표시된다.

일본에서는 아이폰 6s는 로즈골드 모델을 제외하면 모두 25일 배송이 가능했으나, 6s 플러스의 모든 모델과 아이폰 6s의 로즈골드 모델은 2~3주 더 기다려야 했다.

아이폰 6s와 6s 플러스의 발매 예정일은 9월 25일이다. 1차 출시 지역은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뉴질랜드, 푸에르토리코, 싱가포르, 영국, 미국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예약주문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화면이 4.7인치인 아이폰 6s 16GB, 64GB, 128GB 모델의 정가는 미국 기준으로 각각 649 달러, 749 달러, 849 달러이다. 5.5인치 아이폰 6s 플러스 16GB, 64GB, 128GB모델의 정가는 각각 749 달러, 849 달러, 949 달러다.

만약 이를 통신사 2년 약정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모델별로 450 달러씩 낮은 199~499 달러가 된다. 이런 조건이 작년까지는 미국에서 흔했으나 올해부터는 드물어졌다. 올해부터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등 미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에 대한 약정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신제품 스마트폰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병형 기자 bhsong@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로또복권 제667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5	17	25	37	42	43	1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228,764,39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65,005,629
3등	5개 숫자 일치	1,685,17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한국의 시리아난민들 "가족 보고 싶어요"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 30여명이 시리아에 남은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13일 시리아인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가 있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도움을 호소했다.

아흐마드(20)씨는 "이슬람국가(IS) 점령군들 때문에 고국의 통신 환경이 좋지 않아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지만 20대라 고국에 돌아가면 바로 IS에 끌려가기 때문에 시리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페르(45)씨는 "머무르게 해준 한국 정부와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한국사람에게 감사한다"면서도 "터키 카이사라 난민캠프에서 지내는 다섯명의 아이와 아내가 나처럼 안전한 한국땅에 와서 지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인들은 대부분 일을 하러 한국에 왔다. 내전이 발발하면서 돌아가지 못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갖고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난민 인정자와 달리 가족을 초청해 함께 체류하는 '가족결합' 권리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주지 않는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인권단체인 피난처에 따르면 이런 시리아 난민은 768명가량이다.

피난처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가족결합과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해달라.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난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시우 기자

김무성·문재인 "몸과 마음이 아프다"

金 '마약사위' 논란에 궁지
文 '재신임' 두고 분당 위기
능인선원 대법회서 한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능인선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봉축기념 대법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사위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재신임 정국으로 분당 직전까지 몰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같은 자리에 서서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이날 두 사람은 서울 능인선원에서 열린 개원 30주년 기념대법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세계 최대의 약사대불 점안식도 겸한 자리였다.

먼저 축사에 나선 김 대표는 "오늘 대불광장에 모셔진 약사대불은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는 구원불이라고 들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경에 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자신은 둘째 사위의 마약 투약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고, 딸의 의지에 밀려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거세기만 하다.

특히 재판 이후 반년도 더 지난 시점에 불거진 논란으로 해묵은 여권내 계파 갈등마저 되살아나고 있다. '유승민 찍어내기'에 이어 청와대가 '김무성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다. 김 대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는 음모론의 중심에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차단되니 다급해진 청와대가 손을 썼다는 내용이다.

음모론과 사실 그 자체의 경계가 모호한 정치권이다보니 김 대표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의 하소연이 단순하지 않게 들리는 배경이다.

마음이 아프기는 문 대표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에 이어 축사에 나선 문 대표는 "서울약사대불이 오늘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데 약사불은 치유의 부처이다. 저와 김 대표를 비롯해 몸과 마음이 아픈 이 시대 중생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을 주는 부처"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 9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마저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였다. 문 대표는 당내 반발에 밀려 당장 실시하려던 재신임 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자거나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등 더욱 큰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문재인 '재신임' 연기에도 안철수·이종걸 "더 양보"

중앙위 연기·투표 취소 요구

안철수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표에게 중앙위원회의 개최 연기와 재신임 여론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지만 당내 분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문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재신임은 당의 근본적인 혁신 문제를 개인 신상문제로 축소시킴과 동시에 혁신논쟁을 권력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16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투표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전날 3선 이상 중진들의 중재안을 수용해 재신임 투표는 연기하기로 했지만 혁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문 대표는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문 대표가 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국감 이후로 재신임을 미룰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른 비노무현계(비노) 의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위의 의결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있다. 이들은 무기명투표를 통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 비노 의원은 "문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혁신안을 연계시킨 상태다. 인사에 관한 사항을 비밀투표로 한다는 당무위 의결 규정을 원용하면 중앙위도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혁신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편지 등에 함구했지만 주변에서는 불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천혁신안을 전면거부하려는 시도는 과거와 같은 계파 나눠먹기식 공천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영주연합정당에 머물러야 하나"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병무청, 트랜스젠더에 '고환적출 수술 요구' 논란

징병검사때 '수술 강요' 주장에
병무청 "고의적출자 검찰 송치"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온 트랜스젠더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도 없는 기준을 요구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무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이다. 반면 고환결손으로 5급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렌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행동)을 취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 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밖의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아니라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규정에 분명히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 면제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성전환자의 신체등위 판정은 어디까지나 정신건강 의학 분야에서 호르몬 치료 등의 효과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노리고 고의로 고환 적출 수술을 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병형 기자

2호선 사당역, 절도·성범죄 최다 '오명'

최근 4년 절도 112건·성범죄 367건

최근 4년간 전국 지하철 내 절도·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당역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509건으로 이중 성범죄가 367건, 절도가 112건이었다.

2호선은 사당역을 포함해 6곳이 범죄 최다발생역 상위 10곳에 포함됐다.

성범죄의 경우 사당역과 함께 강남역이 3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역(334건), 신도림역(254건), 고속터미널역(220건), 서울대입구역(182건), 교대역 (132건), 홍대입구역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절도범죄는 사당역에 이어 신도림역(94건), 강남역(71건), 종로3가역(65건), 고속터미널역(61건), 선릉역(58건), 서울역(47건), 왕십리역(46건), 교대역(45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38건)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범죄는 최근 4년간 2012년 2114건, 2013년 2697건, 2014년 2662건, 2015년 상반기 236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2012년 72.19%, 2013년 67.45%, 2014년 64.09%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는 70.26%로 다소 올라갔다.

진 의원은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하루빨리 경찰 인력을 충원해 보다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하철 경찰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a market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양재 02)3498-7802 창동 02)3499-6000 목동 02)6678-9665 대치 02)555-8222 서초 02)596-0837 방이역 02)400-2007 둔촌 02)473-5501 청담 02)517-6642 월계 02)974-7503 성산 02)304-3448 흑석 02)813-7001 수서 02)451-8322
용산 02)2077-2800 미아 02)980-5670 국회 02)769-1882 석촌 02)417-3345 성내 02)2224-8971 상계 02)937-0291 교하 031)949-1000 가좌 032)573-8288 소사 032)351-9100 광교 031)212-7110 용인 031)289-0600 고양 031)910-9000
삼송 02)300-4900 파주 031)943-9595 성남 031)738-9000 수원 031)299-9000 신촌 02)2131-1000 서대문 02)2080-6993 인천 032)500-9000 대전 042)580-5000 충북 043)290-0101 광주 062)650-0001 목포 061)280-6000
전주 063)210-4545 군위 054)380-5500 김해 055)310-7000 창원 055)265-8088 울산 052)210-8800 대구 053)355-6311 포항 054)230-8061 부산 051)330-9000 **농협한삼인 문의처** 080)346-3434 **농협목우촌 문의처** 1544-0092
아름찬 문의처 080)399-9988 **농촌사랑상품권 구입안내** nhgift.nonghyup.com **전국 2000여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농협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시 폐지’ 위헌 소송, 헌재 심리만 4년째

‘변호사시험법’ 위헌 신청은 대부분 기각·각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시험 응시 규정 등을 명시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위헌 법률 확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위헌 확인 신청은 2012년 첫 신청이 접수된 이래 4년째 심리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13일 헌재의 사건 검색에 따르면 사시폐지 시한을 다룬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4건이 사전 심사를 거쳐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제1조는 이 기간을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있다.

이 부칙에 대한 첫 위헌확인 신청은 2012년 12월 17일이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이듬해 1월 15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지만 2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후 2013년 4월 1건, 2015년 8월 2건 등 3건이 추가로 제기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심사 중이다.

헌재가 사시 존폐와 관련된 모든 위헌확인에 대해 더딘 심리를 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한 제5조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신청 16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다. 기각 결정까지 걸린 시간은 2개월에서 많게는 2년 반이다.

공개된 일부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다양한 전공 출신 배출 ▲2017년까지 유예로 사시생들 신뢰보호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로스쿨의 도입 목적을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어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넓은 의미에서 사시 폐지를 다룬 부칙 제1, 2조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일각에선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시 존폐 논란에 발 벗고 뛰어들면서 사법의 정치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한편 고시생 모임은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법 제24조 제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4항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기피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건과 부칙 제1, 2조에 대한 위헌확인 2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위증사범’ 104명 적발… 전년比 3배 증가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해 1월부터 9월 10일까지 위증사범 104명을 적발, 동료조직원을 비호하기 위해 위증한 폭력조직원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5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이 적발된 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사기와 다단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사람이 44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다음은 폭력범죄에서 위증한 사람이 29명으로 전체 27.9%를, 도박 등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도 25명으로 24%를 차지했다. 이밖에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이 5명으로 4.8%를,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하다 적발된 사람은 1명이다.

위증 동기는 피고인과의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시위·신분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우려한 위증 26명, 경제적 보상 등을 노린 위증 22명,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한 위증 3명 순이었다. /연미란 기자

도매시장에 추석 선물용 과일 가득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이 선물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사격 경찰관, 4명 중 3명 ‘경고’ 그쳐

“능력 중요… 처벌강화해야”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사격을 대리로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 대다수가 경고만 받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각 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7월 사이 대리사격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모두 290명에 달했다.

현재 경위 이하 경찰관은 매년 60발씩 사격을 해야 하고 해당 사격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연도별로 2012년에 248명으로 대리사격 인원이 가장 많았고, 2013년 9명, 지난해 31명, 올해 7월 현재 2명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인원 중 74.8%인 217명은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가장 낮은 징계형인 견책이 54명, 감봉은 15명이었고, 정직 이상은 4명에 그쳤다.

경찰서별로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감찰에서는 징계의견을 내지만,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개 경고로 수위가 낮아진다고 의원실 측은 말했다.

유대운 의원은 “대부분 경고조치만 하고 넘어가니깐 걸려도 봐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에게 총기사용 능력이 중요한 만큼 대리사격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檢,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흥업소 업주에게 거액 받아 朴 “정당한 수수료” 혐의 부인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유흥업소 업주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H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박모(48)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청장은 박씨에게서 받은 돈이 세무사로서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고 받은 정당한 수수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의 혐의를 확인하고자 이달 10일 H세무법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청장은 작년 12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의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전 청장은 이달 15일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유흥업소 업주 박씨를 이달 3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전·현직 고위 세무공무원에 대한 추가 금품로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檢, '포스코 비리' 윤석만 비밀리에 조사

정준양 前 회장 선임배경 진술
이상득 등 정권수사 속도 예상

검찰이 2009년 포스코 회장을 놓고 정준양 전 회장과 경쟁한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을 비밀리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전 정권 실세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경쟁하다 결국 계열사인 포스코건설로 밀려난 과정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옛 포항제철에 입사한 윤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에서 대부분을 보낸 대표적인 '철강맨'이다.

회장 자리를 두고 정 전 회장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2009년 초 윤 전 회장의 직함은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이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이었다. 이들의 자리가 뒤바뀌어 정 전 회장이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고 윤 전 회장이 포스코건설 회장으로 옮겨야 했던 데에는 이명박 정부 유력 인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던 의혹이다.

검찰은 윤 전 회장에 앞서 정 전 회장 직전 그룹 수장이던 이구택 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그룹을 떠난 이유와 후임 회장이 선출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2009년 초에 있었던 회장 선임 과정을 캐는 것은 외압 의혹을 뒤늦게 밝히는 차원보다는 최근 포스코와 협력사 간 특혜거래가 불거진 배경을 규명하는 쪽에 가깝다.

이미 전임 정부에서 위세가 높던 정치인을 배후에 둔 협력사나 외주업체가 정 전 회장의 재임 시절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하여 수주했다는 의혹은 곳곳에서 단서가 드러난 상태다.

이상득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제철소 설비 시공·보수업체 티엠테크가 다른 협력사의 일감을 넘겨받아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사실 등이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정 전 회장이 티엠테크 등 특혜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와 거래하는 데 개입한 정황도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로 일부 확인된 상태다.

이제 검찰은 특혜거래의 대가관계를 규명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정 전 회장 등이 특혜거래를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을 풀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포스코가 2009년 경영상 돌발 악재였던 국방부의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고 정 전 회장의 선임 자체가 특혜와 대가 관계를 이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 후 도움을 준 유력 인사들에게 '빚 갚기' 차원에서 관련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윤 전 회장 조사는 포스코의 협력사 특혜거래 의혹과 정 전 회장의 회장 선임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려는 뜻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조만간 네 번째로 불러 회장 선임과 특혜성 거래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하기로 했다. 티엠테크 사건에 연루된 이상득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한 일정도 조율할 계획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해운대서 아름다운 한복 패션쇼 1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한국의 멋과 매력을 선보이는 '2015 부산 한복데이' 행사가 열렸다. 한복패션쇼에 참가한 모델들이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53%, 사형제도 존치 찬성"

현직 변호사 53%가 사법 정의를 이유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고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53%)으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약 6%가 많았다"고 밝혔다.

사형제 존치 의견을 밝힌 이유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가 42%로 가장 높았고,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 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사형제 존치의 개선책으로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유예(37%)▲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13%)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반면 사형제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 가석방·사면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를 차지했다. 가석방·사면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7월 발의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변협의 의견 제시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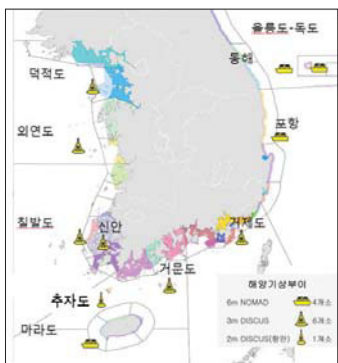
/연미란 기자

"돌고래호 사고 해역 너울 관측장비 고장 잦다"

추자도 해역 부이 1대 운용
설치 19개월 간 5차례 장애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가 전복된 제주 추자도 해역의 너울 관측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돌고래호가 5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될 당시 너울성 파도가 심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너울이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13일 기상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13~올해 7월) 해양기상 부이 설치·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자도 해역에는 해양기상 부이(Bouy·부표) 1대가 운용되고 있다.

부이 설치 지점은 제주시 북서쪽 49㎞ 해상(북위 34도47분37초, 동경 126도8분28초)이다. 가격은 1억6400만원이며 크기는 원반형의 2m짜리다.

동해와 서해·남해에 설치된 해양기상부이 관측망. /연합뉴스

그러나 부이는 지난해 1월 설치된 이후 최근까지 5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일수는 82일에 달했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82일 동안 제 기능을 못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전원부 고장, 통신부 고장, 기상관측 센서부 파손, 계류구 절단 등이었다. 전원부와 통신부 고장은 올해만 각각 두 번씩 발생해 가장 잦았다.

특히 추자도에는 6m 선박형, 3m 선박형이 설치된 다른 지점과 달리 소형 부이인 2m 원반형이 설치돼 있다.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한편 3년간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이는 서쪽의 칠발도(174일)였으며 그다음으로 울릉도·독도(143일), 마라도(111일), 거제도(95일), 덕적도(89일) 등의 순이었다.

해양기상 부이는 해안에서 40~80㎞ 떨어진 바다에 설치해 파고, 풍향·풍속, 기온·수온, 기압·습도 등을 관측하고 해양기상 예·특보에 활용하는 장비다.

/연미란 기자

2016 수능 응시자 1.5% 감소

졸업생은 3.5% 증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2일 실시하는 2016학년도 수능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가 63만1184명으로 2015학년도 64만621명보다 9437명(1.5%)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학생은 전체의 76.4%인 48만2051명이고 졸업생은 13만6090명(21.6%), 검정고시 등은 1만3043명(2.0%)으로 집계됐다.

졸업생은 지난해 13만1539명에서 4551명(3.5%) 늘었고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도 2015학년도 20.5%에서 21.6%로 높아졌다.

졸업생은 2014학년 수능 12만7635명에서 2015학년도에 4년 만에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올해 수능에 지원한 재학생은 지난해 49만5027명보다 1만2976명 줄었다.

전체 응시원서 접수자가 줄어든 가운데 졸업생이 증가한 데는 수능 난이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능의 난이도가 하락한데다 대학에 다니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반수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남학생이 작년보다 9421명 감소한 32만3783명(51.3%)이고 여학생은 16명 감소한 30만7401명(48.7%)이다.

/연미란 기자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14화 잘못 입금된 돈과 횡령>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판결

형법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성능·친환경… 전 세계 신차 총 출동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2015

17일부터 27일까지 열려 내일부터 언론공개 행사
폭스바겐은 오늘 선공개 최신모델·기술력 선보여

올해로 66회를 맞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1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열린다.

앞서 15일 예정된 언론 공개 행사에서 이번 모터쇼에 참여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세계 최초 공개 신차(월드프리미어)가 잘정을 이룰 전망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이보다도 하루 당겨 행사를 시작한다.

폭스바겐은 14일 오후 7시 30분 프랑크푸르트 프라포트 아레나에서 온더무브(ON THE MOVE)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폭스바겐은 전세계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자사의 최신 모델과 기술력을 타 브랜드보다 한발 앞서 선보일 계획이다.

폭스바겐그룹은 폭스바겐 승용차와 상용차, 아우디, 벤틀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부가티, 스코다, 세아트, 스카니아, 만, 두카티 등 총 12개의 자동차·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산하에 두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가 내놓는 'e-트론 콰트로(e-tron quattro)' 콘셉트카는 대형 전기차의 미래를 제시한다.

뛰어난 배터리 기술과 최고 수준의 공기 역학 설계를 통해 한 번 충전으로 최장 5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2018년 양산 예정인 이 프로젝트에는 LG화학과 삼성SDI가 참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BMW 그룹도 2개 층과 1만 2000㎡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BMW, MINI, 롤스로이스 등 각 브랜드의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공개한다.

BMW가 내놓는 야심작 중 하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뉴 740e'다. BMW가 보유한 'e드라이브' 기술이 적용된 '뉴 740e'는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326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유럽 기준으로 47.6km/ℓ 다. 순수 전기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며 최대 40km 거리를 배출가스 없이 무공해로 달릴 수 있다. 르노그룹도 탈리스만 에스테이트 왜건 모델과 메간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탈리스만은 올해 말에 유럽에 먼저 출시된다. 르노삼성은 내년 상반기에 부산공장에서 탈리스만을 생산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우아한 유럽형 세단인 탈리스만의 주요 특징으로는 넉넉한 실내공간을 꼽을 수 있다.

벤틀리모터스 벤테이가.

현대자동차도 국내를 대표해 이번 모터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준비한 고성능 브랜드 'N' 발표 현장을 온라인 생중계한다.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6시 15분부터 45분까지 약 30분가량 브랜드 홈페이지 (brand.hyundai.com)와 기업문화홍보 홈페이지(pr.hyundai.com), 그룹 홈페이지(www.hyundai.co.kr)를 통해 프랑크푸르트 보도발표회 현장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N을 공식 런칭하는 한편 차세대 i20 랠리카, 콘셉트카 'RM15', 'N 비전 그란 투리스모' 쇼카 등을 통해 고성능차 개발 비전을 밝힌다.

또 유럽 전략차종 i20를 기반으로 개발한 CUV 'i20 액티브'를 유럽 최초로 공개하고 쿠페 콘셉트카 '비전G' 등을 소개한다.

벤틀리모터스는 자사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신모델인 '벤테이가'를 이번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한다.

사측에 따르면 벤테이가는 완전히 개선된 6.0 리터 트윈터보 W12 엔진을 탑재했다. 최고출력 608마력/5250~6000rpm(분당엔진회전수), 최대토크 91.8kg·m/1250~4500rpm의 힘을 뿜어낸다.

이번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는 전세계 39개국 1103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신차와 차세대 자동차 미래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쌍용차 렉스턴W. /쌍용차 제공

오프로드 거뜬… 캠핑 부르는 RV대전

주행성능+디자인+편의사양까지 소비자 잡기 총력

자동차시장에서 캠핑·레저에 유용한 오프로드 차량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온·오프로드 주행성능에 더해진 독특한 디자인, 편의사양 등을 내세워 소비자 사로잡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2일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렉스턴W를 출시했다. 렉스턴W에 장착된 2.2ℓ e-XDi220 디젤엔진은 최고출력 178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낸다. 1400~2800rpm의 낮은 회전 구간에서 최대토크가 구현돼 출발·가속 시 힘 있게 치고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돌, 흙이 깔린 비포장도로·오르막에서 렉스턴W의 오프로드 성능이 드러난다"며 "4륜구동에서는 그 힘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측은 렉스턴W가 월 1000대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렉스턴W의 가격은 2818만~3876만원이다. 오토캠핑 등 레저 활동에 적합한 최대 견인하중 2000kg의 트레일링 히치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FCA코리아는 최근 소형 SUV 지프 레니게이드를 출시했다. 4륜구동 방식에 2.0ℓ 디젤엔진이 장착된 레니게이드는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힘을 낸다. 파블로 로쏘 FCA 대표는 "소형 SUV 시장에서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모델은 없다"며 "물량공급만 원활하다면 월 200대 이상 판매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레니게이드는 유럽에서 6월 5400여 대가 판매됐고 미국에서는 올해 3~7월 2만750대가 판매됐다. 국내 판매가격은 3480만~4390만원이다. 10월 출시 후 100대가 넘는 계약이 완료됐다.

볼보와 포드는 각각 5000만원대의 크로스컨트리와 익스플로러를 출시했다. 볼보 크로스컨트리는 자사의 왜건형 모델과 SUV 주행성능을 갖춘 모델이다. AWD(상시4륜구동)시스템이 적용돼 산길 주행에 무리가 없다. 가격은 5220만~5550만원이다. /정용기 기자

한화 임직원, 둘레길 걸으며 나눔 실천

'워킹포어스' 캠페인 펼쳐

한화그룹은 임직원들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웃돕기 성금이 적립되는 친환경 걷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한화 제조부문 계열사 임직원·가족 등 300여명은 전날 오후 서울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기부하는 '한화 워킹포어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화약, 방산, 기계, 무역부문),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큐셀, 한화큐셀코리아, 한화첨단소재, 한화에너지, 한화도시개발 등 12개 계열사의 임직원 가족, 사전 안내로 동참을 희망한 일반시민 등이 참여했다.

12일 '한화 워킹포어스' 행사에 참여한 한화 임직원들이 전체 코스를 완주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제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걷거나 뛰면 10m당 1원으로 자동으로 산정·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4km 가량의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스탬프를 찍는 미션을 수행하고 미니콘서트를 감상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대한항공, 초등생 대상 사생대회 개최

대한항공은 제7회 '내가 그린 예쁜 비행기' 사생 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생 어린이 300팀이 참가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김선철 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장 등 관계자와 대회 참가 어린이, 동반 학부모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포토존, 생활 속 응급처치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보건·안전 교육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가 신청한 625개 팀 중 학교장 추천, 수상 내역 등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했다.

1등 수상작 1개 작품은 대한항공 B777-300ER 항공기 외벽에 래핑돼 전 세계 하늘을 날게된다.

또 1등 어린이와 가족은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 본사를 방문하는 기회를 얻는다. /정용기 기자

꿈 같은 미래생활이 현실이 되는 곳

| 르포 | 삼성 브랜드 체험관 '딜라이트'에 가보니

삼성전자의 브랜드 체험관 '삼성 딜라이트(Samsung D'light)'가 3개월에 걸친 새 단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서초사옥에 재개관했다.
2008년 12월 개관해 올해 7주년을 맞는 딜라이트는 디지털(digital)과 라이트(light)의 합성어로, 삼성에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삼성 '딜라이트' 내 센스존. /삼성전자 제공

새단장 후 3개월 만에 재개관
동작 인식 LED조명·TV 등
기술·기기발전 온몸으로 체험

새단장한 '딜라이트'는 체험 중심으로 바뀌어 1층은 디지털 인터랙티브 체험, 2층은 미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개관 하루 전날인 11일 방문한 '딜라이트'는 마치 놀이공원을 온 듯 밴드를 손목에 차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기술과 기기의 발전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1층 출입문 왼쪽에는 사람의 사진과 닉네임이 나오고 있는 상업용 디스플레이(LFD) 여러 개가 있다.

이곳은 '싱크(SYNC)'존으로 아래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딜라이트'를 체험할 수 있는 딜라이트 밴드(RFID 방식)가 있다. 딜라이트 밴드를 통해 각 공간에서 체험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이외에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체험할 수 있도록 '딜라이트' 도슨트들이 돕는다. 이 밴드를 손목에 착용한다. 어린이 체험자를 위해 높이가 낮은 키오스크 2개를 포함해 총 6개의 키오스크가 있는데, 이 밴드를 키오스크에 태그한 뒤 사진을 찍고 닉네임을 입력한다. 시간이 잠시 흐르면 방금 찍은 사진과 닉네임이 위에 있는 한 LFD에서 나온다. LFD 뒷면에도 LFD가 설치돼 밖에서도 체험자들의 사진과 닉네임을 볼 수 있다.

싱크존을 지나면 '딜라이트'의 자화상을 꾸밀 수 있는 '이모션(EMOTION)'으로 명명된 공간이 있다. 키오스크에 딜라이트 밴드를 대면 나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키오스크 한 대 당 각종 패턴이 화면에 나오는 총 8대의 갤럭시S6가 유리 안쪽에 있다. 한 패턴을 스캔해 갤럭시S6 엣지로 효과를 주면, 자화상이 완성된다. 체험 후 나온 키워드는 'modest(겸손한)'이었다. 완성된자화상은 옆쪽 큰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숨겨진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센스(SENSE)'존이 있다. 체험자의 열정을 알 수 있는 공간으로 한 손을 이용해 패턴을 뚜렷하게 만든다. 체험자의 행동은 갤럭시S6가 인식한다. 체험 후 'thoughtful(사려깊은)'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다음 공간은 '인튜이션(INTUITION)'으로 직관에 기반한 선택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자들은 행성을 꾸미기 위해 행성의 모양, 마을의 혼잡정도, 거주자들의 모습, 날씨 등을 선택해 행성을 완성할 수 있다.

'이미지네이션(IMAGINATION)'존은 미래를 찾는 공간으로 미러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거울의 모양과 패턴을 고른다. 체험자들의 키워드로는 '생각 재봉사', '개성탐험가', '아이디어 공장장', '상상 소믈리에' 등이 뜬다.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결과물은 딜라이트 홈페이지(www.samsungdlight.com)에 전송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2층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품인 D램, 낸드플래시, 모바일 AP, LED 조명 등이 있다. 각 제품군에 대한 영상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옆에서 체험자들은 반도체의 미래 기술이 개인과 사회,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한 영상을 볼 수 있다. '라이브(LIVE)'존에서 가상 현실을 이용한 미래 주거생활을 태블릿PC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LG전자, 러 프리미엄 가전 1위 굳힌다

전략 제품 '체험존' 로드쇼
빌트인 가전 패키지 첫 공개

러시아 고객들이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쇼핑몰 메가 벨라야 다차에서 열린 LG전자 로드쇼에서 프리미엄 세탁기를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는 러시아 고객들에게 전략제품을 소개하는 가전 로드쇼를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0일까지 아비아파크(Aviapark), 아뜨리움(Atrium),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등 모스크바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 체험존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러시아에서 전략 제품을 공개하는 로드쇼를 개최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LG전자는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제품에서 현지 시장점유율 1위(매출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전략 제품들로 1위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로드쇼에서 LG전자는 이달 러시아에 출시할 계획인 빌트인 가전 패키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빌트인 가전 패키지는 오븐, 쿡탑, 냉장고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편리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조한진 기자

한·중·일 UHD '사활'… TV 지형도 바뀔까?

삼성·LG, 시장 수성 잰걸음
기술향상·생태계 조성 총력
日·中 제조사도 스피드 업

LG전자가 IFA 2015에서 전시한 UHD 올레드 TV. /LG전자 제공

글로벌 TV 제조사들이 초고화질(UHD) TV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TV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UHD TV만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다. 고화질(HD) 시대의 흐름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UHD TV 시장까지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시장조사기관 IHS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세계 TV 시장 출하량은 올해 2분기 4800만대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 줄었다. 이는 2009년 2분기 이후 전년대비 실적으로는 최대 폭의 감소라고 IHS는 분석했다.

반면 UHD TV 시장은 활황이다. 같은 기간 620만대가 팔리면서 1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직 전체 TV 판매량의 13% 수준이지만 UHD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UHD TV 판매량이 2020년까지 연평균 6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UHD TV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SA가 또 미국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분의 2가 UHD TV에 대해 알고 있고 30%는 구매 의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UHD TV 구매자 중 60%는 UHD TV의 화질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답했고, 35%도 '다소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망스럽다거나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다'는 반응은 10% 미만이었다.

최근 UHD 콘텐츠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5년 이내에 UHD 콘텐츠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TV 시장에서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UHD TV 시장 수성을 위해 빠른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양사는 TV 화질 기술 향상과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과 중국 제조사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등은 최근 막을 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UHD TV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정조준했다. 중국의 하이센스, TCL, 하이얼 역시 기술을 축적하며 한국 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UHD TV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콘텐츠 공급사들의 공격적 사업확장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특수가 있어 각 TV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UHD TV를 쏟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

LG그룹

내년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2017년까지 2300명 신규 채용

LS그룹은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직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LS그룹은 설명했다.

아울러 LS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내년부터 채용규모를 매년 10% 이상 늘려 오는 2017년까지 230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조한진 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쉽.

게임, 이젠 보면서 즐긴다

'롤챔스·블소 소울파티' e스포츠 인기 열풍

직접 플레이하는 게임을 넘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 문화가 구축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플레이 하는 게임을 스포츠 중계방송처럼 시청하는 대표적 형태가 'e스포츠'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예전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e스포츠는 현재 리그오브레전드, 블레이드 앤 소울, 피파온라인3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e스포츠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들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여러 이용자가 대결을 펼칠 수 있는 게임이어야 한다. 보는 이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배경 공간이 제한돼 있어야 유리하다. 짧은 시간 안에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특성을 갖춘 게임을 MOBA(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다자 간 대전) 장르로 분류하기도 한다.

e스포츠 게임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리그오브레전드는 성공적인 행보를 기록하고 있다.

e스포츠를 염두해두고 제작된 리그오브레전드는 국내에서 2011년 서비스 개시와 함께 e스포츠 인비테이셔널(초청 경기)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유명 프로게임단이 한국 무대에서 기량을 뽐냈다. 국내팀들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관객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롤챔스)라는 이름으로 정식 리그가 출범했다.

이 밖에도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 층에 이용자들이 e스포츠로서 리그오브레전드를 즐기게 하기 위해 에코시스템이 운영됐다. 피시방 토너먼트, 여성부 리그, 직장인 리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올해 들어 e스포츠는 더욱 대중 속으로 가까이 다가섰다.

8월 14~15일과 22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고 엔씨소프트가 개최한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시즌2 결승과 하스스톤 마스터즈 시즌3 결승 경기에서 각각 1만5000명, 7000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최다 관객수 기록을 세웠다.

게임사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보는 게임'에 주목하는 것은 게임을 보는 관중들이 곧 잠재적인 게임 이용자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중계방송을 보다 보면 운동을 직접 해보고 싶어지는 것처럼, 게임 영상을 보는 사람이 게임을 직접 구매·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치매 어르신 실시간 안전 서비스

SKT, 1200명에 'T케어' 제공

SK텔레콤은 실종 위험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특화 서비스 'T케어'를 서울시 치매어르신 1200명에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선보인 이래 22만대가 판매된 어린이 안전 서비스 'T키즈폰'을 기반으로 기존 실시간 위치 확인·안심존 설정 등 안전 기능에 치매어르신을 위한 SOS 기능을 더해 개발됐다.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형태의 전용 단말기와 특화 앱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0년 6569건에서 2014년 8207건으로 5년간 약 25% 증가했다.

치매어르신의 경우 실종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면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세심한 위치 관리가 필요하다.

T케어에 탑재된 안전 서비스들은 치매어르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맞게 개발돼 실종 사고를 예방한다.

보호자와 사회복지사는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T케어' 단말을 착용한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존을 설정해 어르신이 해당 지역을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단말의 알람을 원격으로 작동시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케어 서비스가 치매어르신들의 실종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12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SK텔레콤이 치매어르신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T케어' 사용법을 교육받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KT '기가 와이파이 홈' 가입자 30만명 돌파

합리적인 소비 증가 영향

KT는 가정용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올레 기가 와이파이 홈' 가입자가 30만명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를 출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올레 기가 와이파이 홈은 지난 3월 KT가 내놓은 가정용 기가급 무선인터넷 서비스다.

KT는 집 밖에서 필요한 만큼 LTE 데이터를 사용하고 집 안에서는 와이파이로 대용량 데이터를 쓰는 합리적인 소비가 늘면서 이 서비스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T는 이용자 혜택 강화와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가 인터넷+모바일 2회선' 혹은 '기가 인터넷+모바일 1회선+기가 UHD tv'로 상품을 결합한 고객 대상으로 기가 와이파이 홈을 무료로 지원한다.

11일 광화문 KT 사옥에서 사내 홍보 모델들이 올레 기가 와이파이 홈 시연을 하고 있다. /KT 제공

이 외 KT는 기가 인터넷, 기가 UHD tv, 올레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면 조건에 따라 1000~3000원의 월 이용료 할인 혜택도 준다. 또 인터넷 약정이 만료된 고객이라면 기가 와이파이 홈을 3년 약정 신규로 신청했을 때 서비스 월 이용료 3000원을 전액 면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이성환 KT 인터넷사업담당 상무는 "유선인터넷 서비스인 '올레 기가 인터넷' 가입자도 최근 50만명을 돌파했다"며 "유·무선 기가 인터넷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정문경 기자

LGU+, 안강개발과 '홈 IoT' 오피스텔 구축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으로 집 안의 스위치와 플러그, 에어컨 등의 가전까지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오피스텔'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부동산 종합개발 회사인 안강개발과 함께 국내 최초로 IoT 오피스텔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안강개발이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약 1000여 세대의 오피스텔에 LG유플러스의 홈 IoT(IoT@홈) 서비스가 빌트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 양사는 추후 IoT 오피스텔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oT 오피스텔은 집밖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의 현관문과 창문의 보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일러나 제습기, 가스밸브 제어는 물론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까지 제어할 수 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 사업부장은 "자사가 제공하는 홈 IoT의 모든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IoT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차별화된 주거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제조사와 개발사, 서비스 제공회사 등과 함께 선순환의 IoT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준 LG유플러스 컨버지드홈사업부장(오른쪽)과 안재홍 안강개발 대표가 홈IoT 오피스텔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환하게 웃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정문경 기자

'차명주식 논란' 신세계-신세계건설株 동반 하락

국세청, 1000억원대 임직원 차명주식 발견 조사확대
기재위 국정감사, 신세계그룹 세무조사 '봐주기' 논란

신세계그룹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되며 이들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검찰은 신세계 임직원의 대규모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건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황. 여기에 국정감사에선 신세계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34%(1200원) 내린 5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건설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6% 이상 하락했다.

같은 날 신세계 주가도 전일보다 2.42%(6000원) 떨어진 24만2000원에 장을 마감하며 전날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4개월째 진행 중인 신세계 이마트와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5월 이마트가 신세계로부터 분할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조사4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1000억원 대의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계열사인 신세계건설로 세무조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조사방법의 적절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신세계그룹과 신세계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4개월째 진행되는 가운데 10일과 11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연합뉴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은 이미 지난 2006년 발견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모든 것을 시인했다"며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액을 매길 때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평가해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며 정경유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당시 국세청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5월 또다시 신세계그룹 차명계좌가 발견되기에 이르렀다"며 "차명주식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로, 일반세무조사가 아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차명주식과 관련한 조사가 일반세무조사 형태로 진행되는지 조세범칙조사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나 허위계약 등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이 아닌, 처벌 목적의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슈화될수록 신세계건설은 좌불안석이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 대한 투자계획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실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용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건설 주가는 이마트와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로 대형 투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고점대비 37%나 하락한 수준"이라며 "당사 추정치 기준 2016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4.3(x)으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14일	일본	7월	광공업생산 (YoY)		0.2%
	유로존	7월	산업생산 (YoY)	0.5%	1.2%
15일	미국	8월	소매판매 (MoM)	0.3%	0.6%
	미국	8월	산업생산 (MoM)	-0.2%	0.6%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16일	유로존	8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2%	0.2%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0.1%	0.1%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61	61
17일	일본	8월	수출 (YoY)		7.6%
	일본	8월	수입 (YoY)		-3.2%
	일본	8월	무역수지 (십억엔)		-368.8B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MoM)	-3.8%	0.2%
	미국	8월	건축허가건수 (MoM)	1.8%	-15.5%
18일	미국		FOMC 회의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 (MoM)	0.2%	-0.2%
	한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4%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손보사 실손보험료 너무 올렸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손해보험 회사별 실손 보험료 및 단독형 상품 연령대별 보험료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11곳은 2015년 실손보험료를 전년말보다 평균 12.2% 인상했다.

동부화재는 올해 20.8%를 올렸고 가장 큰폭으로 인상했다. 이어 삼성화재 17.9%, 메리츠화재 16.0%, 현대해상 16.0%, KB손해보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오 의원은 "손해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보험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는 최근 3개년(2012~2014년) 간 평균 손해율이 114.4%로 대형 손보사 중 두 번째로 낮지만, 인상률은 가장 높다. 삼성화재도 손해율이 93.4%로 가장 낮았지만 인상률이 17.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AIG손보의 경우 지난해 손해율이 89.5%를 기록하자, 보험료를 7.5%를 인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손보사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률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대출상품 비교선택 유리해 진다

금융업계 '금리비교공시' 강화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공시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여러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중앙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비교·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을 일일이 검색하지 않더라도 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1개월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반면 저축은행은 3개월 평균 금리를 공시하고 있어 대출금리 변동흐름을 때맞춰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축소하는 한편 대상범위도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 등으로 조정키로 했다.

은행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대출금리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이한 등급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현재 비교공시에서 제외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도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를 시행 중인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의 58.7%를 차지하는 4~7등급 구간이 세분화되지 않은 현행 기준을 실질적인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론이나 리볼빙 등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상품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상품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리스상품을 신설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현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의 기본취지에 맞게 대출금리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취약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는 금리경쟁을 촉진시켜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영업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의 대출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국채선물 거래대금 49조원… 사상 최고치

3년 국채선물 거래가 최고치를 갱신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3년 국채선물 거래대금은 48조8000억원, 10년 국채선물 거래대금은 1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3년 국채선물 거래량은 44만5573계약으로 지난 2011년 9월 19일 45만5123계약을 기록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66.57%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0.71%, 2.43%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결제월물 이월(roll-over) 목적의 거래가 사상 최고치인 29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거래가 급증했다"며 "더불어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2015년 4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우수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사)벤처기업협회는 우수한 벤처기업의 인재를 공동으로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이란?

매출액, 성장성, 연봉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수벤처기업의 채용정보를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공동채용 참여기업 수준

신입사원 기준 연봉 2,200만원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벤처기업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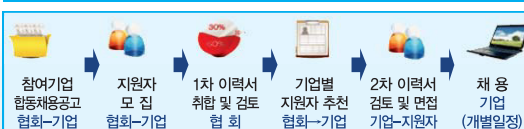
벤처전문취업포털 브이잡(www.v-job.or.kr)
공동채용관에서 기업별 세부 모집요강 파악 후 지원

지원자격

대학졸업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모집일정

2015.09.09(수)~2015.09.25(금)

채용절차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7054
E-mail : job@v-job.or.kr

- 4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

▶ 선도벤처기업관 ◀

SYSTRAN ㈜시스트란인터내셔널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온라인번역서 · 매출액 : 102,777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직원 : 9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기획/인사/영업/개발/언어처리/음성인식 0명

SIB ㈜선인
· 주생산품 : 식물성크림,프리믹스 · 매출액 : 66,000백만원
· 업종/분야 : 식품가공 · 직원 : 130명 · 지역 : 충남
모집내용 : 자재관리/생산관리/품질관리/연구실 0명

RS Reliable & Smart Automation 알에스오토메이션㈜
· 주생산품 : PLC, 인버터 · 매출액 : 50,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전기전자 · 직원 : 155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제조기술 인버터담당 (일본어 필수) 0명

KI KAONI ㈜가온아이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 매출액 : 32,206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업 · 직원 : 172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닷넷기반 유지보수 엔지니어 0명

EDS ㈜한국이디에스
· 주생산품 : PineApp · 매출액 : 30,600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 · 직원 : 20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JAVA 웹프로그래머 0명

BD ㈜비디
· 주생산품 : 모바일솔루션 등 · 매출액 : 24,400백만원
· 업종/분야 : IT서비스 · 직원 : 168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TESTYD JAVA 서버개발자 모집 0명

SE 이엑스티 이엑스티㈜
· 주생산품 : 건설엔지니어링 · 매출액 : 22,100백만원
· 업종/분야 : 건축/토목기술자문 · 직원 : 4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인사,총무,공무 0명

Make in ㈜메이크인
· 주생산품 : 인력공급 등 · 매출액 : 18,000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32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본사 아웃소싱 및 정부지원팀 사원모집 0명

PLATO ㈜플라토
· 주생산품 : 자동차 전장, 디지털 가전·산전, 반도체, BIO-IT융합 · 매출액 : 17,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업 외 · 직원 : 23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연구개발, 반도체기술영업 및 영업관리 외 0명

makeulike ㈜메큐라이크
· 주생산품 : 광고대행/제작/광고기획 · 매출액 : 15,000백만원
· 업종/분야 : 광고대행 · 직원 : 5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웹디자이너 0명

ITian ㈜아이티언
· 주생산품 : 빅데이터 솔루션 · 매출액 : 14,020백만원
· 업종/분야 : 정보통신장비 · 직원 : 46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네트워크 엔지니어 모집(신입) 0명

DKI Technology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개발 · 매출액 : 12,000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105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소프트웨어개발(JAVA,JSP,JAVA SCRIPT)0명

Join Us Technology ㈜제이티
· 주생산품 : 광통신부품 · 매출액 : 11,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업 · 직원 : 41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해외영업/품질관리/연구개발 0명

I-ON communications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개발 · 매출액 : 10,576 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157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기업용SW 및 모바일 솔루션 개발 0명

E&M Ad ㈜모바일이앤엠애드
· 주생산품 : 서비스 · 매출액 : 10,000백만원
· 업종/분야 : 광고대행 · 직원 : 17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광고대행 서비스 0명

▶ 우수성장기업관 ◀

mds technology MDS테크놀로지㈜
· 주생산품 : 임베디드SW · 매출액 : 105,2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서비스 · 직원 : 27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기술영업, 기술지원 연구개발, 교육연구 0명

INNOVATION 생상 ㈜생상
· 주생산품 : 교육컨텐츠마케팅 · 매출액 : 8,624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2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총무/교육콘텐츠 판매관리/마케팅기획 0명

SMK Innovative Global Trading Corportion ㈜에스엠케이
· 주생산품 : 메모리/배터리팩 · 매출액 : 8,1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도소매 · 직원 1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해외(기술)영업 및 무역(메모리/배터리팩/IC)경력 사원 0명

JD SOLUTION ㈜제이디솔루션
· 주생산품 : 하드웨어/펌웨어개발,전자회로 설계 및 프로그래밍 · 매출액 : 6,00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 직원 : 25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전문연구요원(특례)모집 0명

Media4th & Company ㈜미디어포스앤컴퍼니
· 주생산품 : 웹사이트구축 · 매출액 : 3,190백만원
· 업종/분야 : 웹에이전시 · 직원 : 68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웹디자이너모집 0명

SIGETRONICS ㈜시지트로닉스
· 주생산품 : 반도체칩 · 매출액 : 2,500백만원
· 업종/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 · 직원 : 28명 · 지역 : 전북
모집내용 : 영업 0명

REDONE technologies 레드원테크놀러지㈜
· 주생산품 : 아동로봇플랫폼, 로봇모듈 실습장치, 로봇구동기 및 센서모듈 등 · 매출액 : 2,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전기/전자/제어 · 직원 : 12명 · 지역 : 광주
모집내용 : 로봇중앙연구소 연구원 채용 0명

Soul Nature Food ㈜소울네이처푸드
· 주생산품 : 건강기능식품 · 매출액 : 1,5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5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온라인 마케팅 및 쇼핑몰 관리 직원 모집 0명

SOFTZION ㈜소프트자이온
· 주생산품 : 공공기관 및 대기업 대상 솔루션 구축SW · 매출액 : 1,414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2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모바일개발자 모집 0명

태성에스엔아이 ㈜태성에스엔아이
· 주생산품 : BIM · 매출액 : 1,400백만원
· 업종/분야 :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직원 : 35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토목 건축 BIM, 3D 모델링 0명

PLANT ASSET Engineering to O&M 플랜트에셋㈜
· 주생산품 : 솔루션 · 매출액 : 1,304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2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응용소프트웨어(DB관련) 개발자 채용 0명

YENO ㈜씨드아이글로벌
· 주생산품 : 쥬얼리/액세서리 · 매출액 : 1,300백만원
· 업종/분야 : 쥬얼리/액세서리 · 직원 : 13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쥬얼리/액세서리 MD 및 상품기획 0명

JM GREEN 제이엠그린
· 주생산품 : 알알이쏙, 더블세이브도마 제조 도소매업 수출 · 매출액 : 900백만원
· 업종/분야 : 생활용품, 소비재, 기타 · 직원 : 1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영어 · 중국어 가능, 영업사원0명

bibloz ㈜비블로즈
· 주생산품 : 모바일&웹기반의 컨텐트/마케팅 · 매출액 : 698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6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서버개발자 0명

ZOOPITER ㈜주피터코퍼레이션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 매출액 : 35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업 · 직원 : 1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안드로이드 개발자 0명

▶ 연봉우수기업관 ◀

Futurenuri 퓨처누리 ㈜퓨쳐누리
· 주생산품 : 전자도서관 솔루션 · 매출액 : 9,80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솔루션 · 직원 : 98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웹프로그래머 모집 0명

Network Synergy THINKPOOL ㈜씽크풀
· 주생산품 : 보안솔루션 외 · 매출액 : 9,759백만원
· 업종/분야 : SW개발/서비스 · 직원 : 68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신입 및 일반 경력직원 모집 0명

Laser & Physics 레이저앤피직스㈜
· 주생산품 : 레이저 및 레이저장비 · 매출액 : 8,00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30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광학/기계설계/전기전자 연구개발 업무 0명

C/E 씨에스이㈜
· 주생산품 : 반도체장비 · 매출액 : 6,450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20명 · 지역 : 천안/아산
모집내용 : 전기/저장/제어 제작 및 유지보수 0명

시지엔지니어링㈜
· 주생산품 : 토목엔지니어링 · 매출액 : 6,200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16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토목설계/경영지원 업무 및 회계부서(신입/경력) 0명

EDS EDS Corp. 이디에스㈜
· 주생산품 : 광통신부품, 전기기기 · 매출액 : 5,900백만원
· 업종/분야 : 전기/전자/제어 · 직원 : 24명 · 지역 : 광주
모집내용 : 하드웨어/펌웨어개발[정보통신기기] 0명

BANSEOK 반석정밀공업㈜
· 주생산품 : 액체정량토출기 및 주변기기 · 매출액 : 5,886백만원
· 업종/분야 : 제조 · 직원 : 43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기계설계 엔지니어 0명

MONITORAPP ㈜모니터랩
· 주생산품 : 웹방화벽, DB접근제어, VoIp방화벽 · 매출액 : 5,30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 · 직원 : 64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0명

WEIN TECHNOLOGY ㈜웨인테크놀로지
· 주생산품 : 금융관련 솔루션외 · 매출액 : 4,500백만원
· 업종/분야 : IT · 직원 : 56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웹프로그래머 0명

BIO CERA SINCE 1994 ㈜바이오세라
· 주생산품 : 정수용 세라믹볼/항균제/광촉매제조 및 판매 · 매출액 : 4,000백만원
· 업종/분야 : 의료/제약/바이오 · 직원 : 15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그래픽디자인/리플릿 패키지 디자이너 0명

DREA ㈜디리아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 매출액 : 3,500백만원
· 업종/분야 : 서비스 · 직원 : 49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금융자동화기기 업무개발 및 금융솔루션 개발, 금융 SI 0명

GKeS ㈜지케스
· 주생산품 : 전산시스템 통합관리, 전산실에너지관리솔루션, 통합망관리시스템 · 매출액 : 3,132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 직원 : 27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Java, JSP 웹개발자(NMS, SMS 경험자 우대) 0명

deOTIS ㈜디오티스
· 주생산품 : 컨텍센터솔루션 · 매출액 : 2,800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50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시스템 엔지니어 모집 0명

BizSpring ㈜비즈스프링
· 주생산품 : Logger · 매출액 : 2,195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31명 · 지역 : 서울
모집내용 : 비즈스프링 Java개발자 모집 0명

Atto Research 아토리서치㈜
· 주생산품 : 소프트웨어 · 매출액 : 1,112백만원
· 업종/분야 :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 38명 · 지역 : 경기
모집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채용 0명

전국 11곳 5623가구 청약… 지난주 절반 '뚝'

주간 분양캘린더

3주간 물량공세 하던 건설사 추석연휴 앞두고 '숨고르기'

추석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14~20일)에는 지난주보다 분양 물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예정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대표 김운철)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6001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623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는 지난주 공급된 물량(1만2925가구)에 56.49% 감소한 수치다.

최근 3주간 1만 가구 이상이 대규모 공급돼 건설사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견본주택은 9곳이 개관한다. 롯데건설의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평택 용이', 골드클래스건설의 '전주만성 골드클래스' 등 1000가구 이상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당첨자 발표는 27곳, 당첨자 계약은 32곳에서 이뤄진다.

◆ 청약접수

신일(대표 공윤규)은 충남 천안시 다가동에 들어서는 천안 일봉산 해피트리 청약을 15일부터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546가구 규모다. 이 중 16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피데스피엠씨(대표 임창일)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3-3블록에 들어서는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청약을 17일 시작한다. 단지는 지하 2~지상 40층 6개 동 전용면적 73~149㎡ 76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84㎡ 오피스텔 226실도 있다.

EG건설(대표 김용상)이 경기 화성시 송산신도시에 분양하는 송산시범단지 EG the1 레이크뷰도 17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 1층~지상 20층, 전용면적 77~84㎡ 782가구 규모다.

◆ 모델하우스 개관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공급하는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모델하우스가 18일 오픈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25~29층, 11개 동, 전용 59~91㎡ 116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중심(전체 중 81.8%)으로 단지가 구성돼 있다. 10월 개통 예정인 경의선 야당역이 반경 500m 부근에 있다. 앞서 공급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1차'와 함께 운정신도시 내 4개 단지 6315가구 규모의 메이저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된다.

한빛고등학교가 단지와 맞붙어 있고 와석초와 한빛중학교도 도보 통학 거리에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올해 파주 단지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해 이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대림산업(대표 이해욱)이 경기도 평택시 신흥도시개발지구 1, 2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평택용이의 모델하우스는 18일 개관한다. 지하 2~지상 20층 20개동, 전용면적 72~99㎡ 1348가구 규모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9월 14~20일 분양캘린더

구분	시기	시/도	위치	단지명	총 가구수	분양(임대)	전용(㎡)
청약	1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메가스터디타워*	544	544	미정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하남미사지구 A13블록 영구임대	1152	(1152)	21~26
			광교신도시	광교 지웰홈스*	196	196	59~84
		충남	당진시 석문면	LH 석문국가산업단지 국민임대	1330	(1330)	29~46
	15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 죽전 힐더스하임	40	40	221~243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역 스마트W2차*	59	59	21~75
		충남	천안시 다가동	천안 일봉산 해피트리	546	168	84
	16일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내주송월 양우내안에	358	358	59~84
	17일	경기	화성시 송산신도시 EAA2블록	송산시범단지 EG the1 레이크뷰	782	782	77~84
			용인시 기흥역세권지구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768	768	73~149
	21일			기흥역 파크 푸르지오*	226	226	59~84
견본주택 개관	18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584	252	59~84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역 모아미래도	222	222	59~84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7블록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1169	1169	59~91
			군포시 송정지구 B1블록	군포송정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658	658	74~84
			수원시 오목천동	수원권선 꿈에그린 기업임대	2402	(2402)	59~84
			평택시 신흥도시개발지구 1블록	e편한세상 평댕용이	949	949	72~99
			평택시 신흥도시개발지구 2블록	e편한세상 평댕용이	399	399	72~84
		인천	서구 가정지구 4블록	가정 4BL 제일풍경채	900	900	74~84
		전북	전주시 만성지구 B3블록	전주만성 골드클래스	1070	1070	74~84

*: 오피스텔

/리얼투데이 제공

LH, 의정부 민락2지구 38필지 공급

내일 공고 후 10월 중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는 의정부 민락2지구에 38필지(2만4000㎡)의 토지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용지는 실수요자용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33필지)와 자족시설용지(1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4필지) 등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단독주택 용지는 필지당 공급규모가 일반 단독주택용지의 2배 가량 크게 구획된다.

공급방법은 단독주거용지와 자족시설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독주택용지는 신청예약금 1000만원, 자족시설용지는 1억원이며 둘 다 5년 무이자 분할납부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입찰금액의 5%이상을 신청예약금으로 납부한 뒤 2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15일, 신청접수와 계약체결은 10월 중 실시된다.

/박상길 기자

국토부, 택배 서비스 평가

신뢰·친절 등 15등급 구분

정부가 택배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뢰성·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1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과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해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로 구분해 택배서비스를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평가영역은 ▲신뢰성 ▲친절성 ▲접근용이성 ▲신속성 ▲안전성 ▲차별성 등이다.

일반택배의 경우 택배사 간 서비스 비교평가, 콜센터·홈페이지 등의 응대 수준, 피해 처리 기간, 고객만족도로 직결되는 기사 처우 수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특히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전체 택배업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기업택배의 경우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함께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부터 E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가 끝나면 오는 12월 업체별 등급 등 '2015년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라크 신도시 인프라공사 선수금 2400억 수령

한화건설

"수출입銀·무공 적극 지원" 10만가구 신도시 건설 순항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 떨어진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화건설 제공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지난 4월 수주한 2조4000억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소셜인프라) 공사에 대한 선수금 등 약 2400억원을 수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여의도 6배(1830ha) 크기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공사다. 바그다드(이라크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10㎞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국민주택 10만가구와 약 300여 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공사로 구분된다. 공사는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선수금 지급은 이라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 이라크 정부는 알 아바디 총리의 성명을 통해 "농업, 주택 부분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5조 디나르(약 44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화건설은 인프라공사에 대한 선수금 수령으로 신도시 건설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는 현재 8개 타운 중 첫번째인 A타운 공사에 들어갔다. 4320가구(A블록)가 건설 중이다.

다른 블록에서도 부지조성과 기초공사, 아파트 건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59개 블록 834개 동으로 구성된 8개 타운 초대형 신도시가 조성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 및 계약이행보증 등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선수금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2012년 5월 9조원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4월 2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추가 수주했으며 누적 수주액은 1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박상길 기자

국감도 못 밝히는 신세계 '차명계좌'

국세청, 신세계 1000억원대 차명주식 의혹 자료 제출 거부
박영선 "국세청·재벌 유착 의혹…조세포탈혐의 고발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부회장 정용진) 이마트의 '차명주식' 실체를 밝히려 했으나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장 임환수·사진)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국세청은 법대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들은 국세청이 법까지 무시하며 재벌 감싸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외 야당의원들은 국세청에 신세계 차명주식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밀유지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번 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위 위원 3분의1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의 자료 제출 거부로 기재위 국감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는 국세청과 재벌(신세계그룹)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차명주식은 범죄행위로 조세범칙조사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 차명주식 사건은 올 5월 국세청 조사4국이 이마트 세무조사 중 1000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발견한 사건이다. 현재 국세청은 이마트 차명주식에 이어 신세계 건설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은 2006년에도 차명주식이 적발돼 증여세 등 약 3500억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신세계 차명주식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비밀유지 조항은 납세자의 제출 자료나 업무상 취득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법 2호는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비밀유지 조항에서 예외된다고 규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진=박영선 의원실

또 헌법 제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기관이 국감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비밀유지와 국정감사법이 충돌해왔다. 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3분1 동의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법의 충돌로 국가기관이 재벌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마트의 전관 출신 사외이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 사외이사로 있는 전형수 이사는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 이마트의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이사는 2004년도에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는 기억하는 직원도 적다. 대기업에 전관 출신 사외이사는 줄을 섰다. 이마트에 전직 국세청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편들어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세계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며 "신세계와 같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경우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이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롯데월드몰 입점상인, 주차요금 인하 요구

3시간 주차시 1만4400원
쇼핑 금액 관계없이 지불
870여명 서울시에 탄원서

롯데월드몰 입점상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영업부진 타개를 위해 서울시에 주차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에 따르면 롯데월드몰 입점상인들은 최근 상인 870여명의 서명을 담은 주차요금 현실화 탄원서를 서울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상인들은 탄원서에서 "조금씩 늘어나던 고객들의 발걸음이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주차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월드몰 주차장은 지하 2층과 3층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비어 있다. 롯데물산에 따르면 롯데월드몰 주차장은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동시에 2756대를 수용할 수 있다. 차량이 하루 4번 순환된다고 가정하면 1만1000여 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하루 이용 차량이 최대 수용 대수의 14% 정도에 머물고 있다. 차량이 많이 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도 주차대수가 전체 수용가능대수의 30%도 못 채우고 있다.

롯데월드몰 앞 네거리가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6월 하루 평균 446대에 불과하던 롯데월드몰 고객 주차대수는 7월 주차제도 조정이후 1740대, 8월에는 2511대로 늘었으나 9월(1~11일) 들어서는 하루 평균 1575대로 다시 줄었다.

상인들은 비싼 주차요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월드몰의 사전 예약제는 지난 7월부터 폐지됐지만 요금은 소폭 인하된 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주차요금은 오전 10시~오후 8시는 10분당 800원이다. 그외 시간대는 10분당 200원이며 하루 최대 요금은 5만원이다.

예를들어 롯데월드몰에 주차해 3시간 가량 주차하면 1만4400원을 주차료로 내야 한다. 길 건너편 잠실 롯데백화점은 쇼핑요금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롯데월드몰은 쇼핑 금액에 관계없이 주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롯데월드 측에 따르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롯데월드 개점에 따른 주변 교통량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잠실역 사거리의 주중(월~금요일) 시간당 평균 차량 이동대수는 6월이 9427대, 7월이 9455대로 28대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토·일요일은 6월이 8526대, 7월이 8801대로 275대 가량 증가했다. 특히 롯데월드몰 오픈 전인 지난 해 9월 잠실역 사거리의 주중 시간당 평균 차량 이동대수는 9431대, 주말은 8965대 수준이다.

롯데월드몰 주차장은 지하 2층이 기존 롯데월드의 지하 2층, 3층과 연결되도록 설계돼 잠실 주변의 교통량 분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서로 상이한 주차요금 체계로 현재 막혀 있다.

김태완 중앙대 교수(도시시스템공학전공)는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로 인해 쇼핑몰 이용 시민의 불편과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만큼 롯데월드몰 주차장도 주차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1년에 딱 2달 '국산 생물새우' 맛보세요"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이달 16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에서 생물새우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생물새우는 전남 신안에서 어획한 국내산이다. /홈플러스 제공

대형백화점 '특약', 중소기업에 '재고부담'

대형백화점들이 '특약'이라는 조건을 걸고 중소 협력업체에 재고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과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가 져야 하는 '특약 매입' 비중이 지난해 72.7%에 달했다.

특약매입은 입점 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재고 부담까지 떠안는 백화점 판매 형태이다.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특약매입 대신 중소기업과의 직매입 비중을 늘리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직매입 장려에도 백화점 업계의 특약매입 비중은 2012년 이후 3년째 7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업체별로 보면 롯데백화점은 직매입 비중이 2012년 4.7%에서 지난해 2.8%로 줄었고, 현대백화점은 직매입 비중이 7.1%에서 6.2%로 감소했다. /김성현 기자

"추석 선물, 우리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어떠세요" 13일 국순당(대표 배중호)이 우리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로 구성한 '본초'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행사를 마련했다. 본초 선물세트는 복분자·상황버섯·인삼 등의 재료로 각 원료별 적합한 제법으로 빚은 전통 약주 선물세트다. /국순당 제공

'진퇴양난' 풀무원

상반기 실적 부진 등 운송 업체 파업까지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진퇴양난이다. 올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식품업계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송 노동자 파업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실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의 물류계열사 엑소후레쉬물류의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서울가람물류의 화물 용역트럭 차주 40여명은 지난 12일 풀무원물류센터 앞에서 전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입차주들은 풀무원이 지난 1월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풀무원은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 계약서를 강요했고 이는 '갑질'과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서약서는 사측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배차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작성한 것인 만큼 계약서는 취소돼야할 것"이며 "지난 6월 차주 1명이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상·하차 작업 중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해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치료비는 물론 대차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지난 1월 체결된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 브랜드 로고(CI)를 훼손하지 않기로 한 서약서는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풀무원 CI를 도색했을 때가 하지 않았을 때보다 차량 거래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앞으로 1년간 일방적인 제품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차주들이 명분 없이 또 파업을 한다"고 덧붙였다.

본 사업장과 계약한 지입차주는 모두 약 150명으로 이번 파업에는 40명이 참여했다. 풀무원은 지난 4일부터 대차를 통해 추석 비상수송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추석 명절이 다가올수록 물류 량이 증가하고 있어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 주요계열사의 사업 부진으로 풀무원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하반기 실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풀무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2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9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지만 계열사 풀무원식품, 이씨엠디, 푸드머스 등이 해외사업 부진과 메르스 등의 여파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대차를 통해 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최근 사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물류에 차질이 빚어 회사 입장에서도 타격이 크다"며 "차주들과 계속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등 내수경기 침체로 상반기 식품업체들이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해 추석 성수기를 통해 만회하는 상황이다. 풀무원이 일부 지역이라도 추석을 앞두고 파업이 지속되면 물류에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변질·부패 등 우유 부작용 4년간 1100건

최근 4년간 변질, 부패, 식중독 등 우유 부작용 신고가 1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11~2014년) 접수된 우유 부작용 신고가 1100건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사례는 우유가 변질·부패되는 화학적 부식이 41.9%(461건)로 가장 많았다.

롯데면세점, 최근 2년 소비자 피해 '1위'

국내 면세점 중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서 받은 '면세점별 피해구제신청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점 4곳에서 81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롯데백화점이 50건(6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라면세점 24건(29.6%) ▲신세계면세점 4건(4.9%) ▲동화면세점 3건(3.7%) 순이었다.

유통업계, 지난해 교통유발금 25% 감면

롯데와 현대,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서 발생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평균 25%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하나의 세금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서울시(시장 박원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규모 상위 20개 대형 건물 중 11곳은 롯데, 현대, 신세계 계열의 백화점과 마트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 회복세에 '편의점' 영업실적 급등

담배 판매가 회복세를 보이며 편의점과 담배회사가 수혜를 보고 있다.

연초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함에 따라 갑당 마진이 커진데다 담배판매량도 인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돼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것이다.

동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

일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4조2830억원과 214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7.2%, 7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차타고 멜론마을' 등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산지 브랜드를 대표하는 '2015 농식품 파워브랜드'로 22개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곡성의 '기차타고 멜론마을'이 대통령상을, 제주 서귀포의 '불로초 감귤'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파주 장단콩(경기 파주) 등 10개 브랜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에는 예천청결고추(경북 예천) 등 10개 브랜드가 각각 선정됐다.

CJ, 업계 최초 DJSI 아태지역 기업 편입

인적자본개발·보건안전 등 총 23개 부분 우수 평가받아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세계적 권위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평가에서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료품 분야 기업으로 편입됐다고 13일 밝혔다.

DJSI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준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DJSI는 유동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개 기업을 평가하는 DJSI 세계(World) 지수와 아시아 지역 상위 600개 기업을 평가하는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 지수, 그리고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한국 지수로 분류된다.

CJ제일제당은 아시아 600대 기업 중 상위 20% 안에 들며 아시아-태평양 지수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한국 지수에는 자동으로 들어갔다.

국내 식음료 업체가 DJSI 아시아-태평양 지수에 편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 식음료 분야에 선정된 한국 기업도 CJ제일제당이 유일하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와 SK텔레콤, 삼성 전자 등이 DJSI 세계 지수에 7~8년 이상 장기 편입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경제와 환경, 사회 분야로 나눠진 총 23개의 평가 항목에서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개발 항목은 전체 기업 중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인적 자본 보건안전, 환경 보고, 고객관계 관리 항목의 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5개 기업중 상위 5~10%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처음 편입된 만큼 앞으로 경영 전반에 걸쳐 DJSI 기업에 지속적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은미 기자

어린이용 건기식 80%에 화학합성첨가제 사용

합성착향료·유화제 등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10개 중 8개에는 화학합성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관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에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한 281개 제품 중 227개(81%)에 '합성착향료'나 '유화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착향료는 과일·초콜릿·바닐라 향 등을 내는 화학물질이다.

유화제는 제품을 만들 때 물 성분과 기름성분이 잘 섞이게 하거나 식감을 좋게 하는 용도다. /정은미 기자

음식으로 곱씹는 지역 이야기

다양한 음식에 지리적 해석 "음식은, 기후·지형·교통 등 지리적 상호작용으로 탄생"

'지리 레시피-음식으로 풀어 쓴 지리 이야기'(이하 '지리 레시피')는 대학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한 뒤 현재 고등학교 지리 교사로 재직 중인 강재호가 쓴 음식과 지리에 대한 책이다.

교사 생활 중에도 국내외 이곳저곳을 여행해온 작가는 다양한 음식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지리적 해석을 담은 책을 내놓게 됐다.

음식과 지리는 사실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다. 지역의 기후와 토양은 식재료와 조리 방법, 나아가 지역 주민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음식에는 힘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에는 다양한 지리적 접근과 해석이 가능하다.

지리 레시피

강재호 지음
황금비율 펴냄
320쪽/1만8500원

'지리 레시피'는 양념·곡식·탕·채소·해산물·고기 등 6개의 큰 장으로 나눠져 있다. 각 장은 음식의 주재료에 맞는 재료들을 소단원으로 나눠 구성했다.

소단원의 주제는 먼저 음식의 재료가 그 장소에서 생산될 수 있었던 지리적 특징과 역사, 전파 과정 등을 소개한다. 둘째 주제는 세계를 무대로 그 음식이 만들어진 과정과 에피소드를, 셋째 주제는 우리나라 상황과 접목해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양념으로 곁들어 풀어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세상 모든 음식은 그 지역 나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음식의 기원과 전파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동선은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 공간에서의 확산과 문화로의 정착이라는 지리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과 관련해 지리적 동선을 따라가는 과정은 음식의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음식은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 지리적 영향과 교통, 인구분포 등 인문 지리적 영향의 상호작용으로 탄생한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지리는 음식만큼이나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어머니가, 아내가,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에 대한 그리움처럼 지리적 지식을 통해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추억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위·대장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위대한 밥상' 행사에 참여한 의료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제공

5色 캠페인… 환우와 사랑 나누고 믿음 더했다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 개소 5주년 비빔밥 만들고 야구 관람… 소통·동행 등 이색체험 마련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센터장: 김광호)가 개소 5주년을 맞아 '오(5), 위(胃)대(大腸)한 건강'이라는 구호 아래 '위대한 밥상·소통·당신·동행·손길' 이라는 5가지 건강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2일 이대목동병원 3층 이화쉼터에서 열린 '위대한 밥상 – 환우와 함께 만들고 맛보는 건강 비빔밥' 행사에서는 의료진이 평소 진료실에서의 근엄한 모습을 벗어 던지고 환우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었다.

김승철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박은애 기획조정실장, 김광호 위암·대장암협진센터장 등 의료진이 요리사 모자를 쓰고 환우·가족들과 양푼에 담긴 각종 오색 채소와 밥으로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이화쉼터를 찾은 환자들과 음식을 나눠먹으며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는 '위대한 소통'으로 정성애 위·대장센터 교수가 사회로 나서 ▲위암 복강경 수술(이주호 외과 교수) ▲대장암, 왜 증가하는가?(문창모 소화기내과 교수) ▲대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전략(김성은 소화기내과 교수) 등의 건강 강좌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건강강좌가 끝난 후 이화여대 의과대학 댄스동아리 '8seconds'의 축하 공연과 '기부천사'로 이름난 가수 김장훈 씨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축하 콘서트가 개최됐다.

환우들은 김장훈 씨의 재치 있는 입담과 열정 넘치는 라이브 무대를 함께하며 치료의 아픔을 잠시 잊고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어 위암과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은 환우를 축하하는 '위대한 당신' 코너를 통해 환우 가족의 깜짝 영상 편지와 축하 선물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9일에는 환우와 의료진이 함께 목동 야구장에서 야구 관람을 하면서 '위대한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내내 한 목소리로 홈팀인 넥센 히어로즈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이대목동병원 위·대장센터는 '위대한 손길' 행사로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들이 모은 기부금과 털실로 뜬 신생아 모자 150개를 세이브 더 칠드런(이사장: 김노보)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5가지 캠페인으로 구성된 5주년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둘레길 걸으며 중년 여성 건강정보 나눈다

동국제약 훼라민큐·센시아 '동행 캠페인' 참가자 모집

동국제약(대표이사 이영욱)은 오는 10월,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행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성갱년기 치료제 '훼라민큐',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와 관련된 질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단짝친구와 함께 가벼운 산행을 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중년질환 예방과 치료 등에 대한 정보도 얻는 기회를 갖게 된다.

걷기 행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10월 13일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 코스, 2차는 10월 20일 북한산 둘레길 코스에서 열린다. 40세 이상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10월 2일까지 훼라민큐(www.feraminq.com)나 센시아(www.censia.co.kr) 브랜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중년 여성들의 고민과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매회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가을엔 '내츄럴 볼드펌·브라운 컬러' 대세

박준뷰티랩, 시즌 트랜드 제시

박준뷰티랩(회장 박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즌별 트랜드 헤어스타일을 제시하는 'IT HAIR'를 발표, 가을겨울(F/W)시즌 헤어스타일 트렌드로 내츄럴 볼드펌과 브라운 컬러로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내츄럴 볼드펌은 박준뷰티랩 청담점 지우디자이너가 제시한 것으로 쇄골 밑까지 내려오는 중간 정도의 머리 길이에 C컬과 S컬을 조합한 헤어스타일이다.

지우 디자이너는 헤어스타일을 구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모델 정나영씨는 마른 체격에 얼굴이 작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뚝 떨어지는 스타일보다는 내추럴하게 굵은 웨이브가 들어간 스타일이 잘 어울렸다"며 "헤어 컬러는 가을과 겨울에 잘 어울리는 웜 브라운 컬러로 차분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법에 대해서는 "굵은 웨이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윗머리의 볼륨감만 잘 살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윗머리에 볼륨감이 없으면 머리 전체가 네모나게 보여 밋밋해질 수 있다"며 "샴푸 후 윗머리를 주먹으로 살짝 움켜쥔 상태에서 드라이기 바람을 이용해 볼륨감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16일 팡파르

144개팀 1만2000명 최대 규모 퍼레이드·춤 경연 등 거리 들썩

원주시와 (재)원주문화재단은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2015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을 16~20일까지 원주시 따뚜공연장, 원일로 일대 등지에서 개최한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기존 지역축제의 형식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든 자유롭게 공연을 펼치는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축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144개팀(1만2000여명) 중 국내 121개팀(1만1000여명)과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팀 10개국 23개팀(1000여명)이 참가한다. '길, 사람, 소통'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민속춤과 화려하고 웅장한 퍼레이드, 장병팀과 국내팀들의 열정적이고 화려한 춤 경연과 프린지 공연 등이 원주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축제의 메인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댄싱카니발'은 전국 최대 공모형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기간 동안 매일 저녁 펼쳐져 원주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한다.

문의 (033) 763-9402. /이예진 기자 green@

star bag

두 번째 스페셜 앨범

그룹 **슈퍼주니어**가 데뷔 10주년 기념 두 번째 스페셜 앨범 '매직'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기존 스페셜 앨범에 신곡 '매직'을 비롯한 4곡을 추가로 수록했다. 멤버 은혁, 동해, 최시원의 군입대 전 마지막 앨범이다.

신곡 '작별하나' 발표

8인조 완전체로 돌아오는 걸그룹 **러블리즈**가 14일 자정 신곡 '작별하나'를 발표했다. 이별에 대한 섬세한 가사가 돋보이는 발라드 곡이다. 러블리즈는 새 미니앨범 '러블리즈8'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시아송페스티벌' MC

슈퍼주니어 **이특**, EXID **하니**, 배우 **홍종현**이 내달 11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아시아송페스티벌' MC로 발탁됐다. 행사 관계자는 "3명의 조합이 행사를 더욱 화려하고 뜨겁게 달굴 것"이라고 전했다.

선공개곡 15일 발표

YG 신인 그룹 **아이콘**이 오는 15일 선공개곡 '취향저격'을 발표한다. 멤버 B.I와 바비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아이콘은 다음달 1일과 11월 2일에 걸쳐 데뷔 앨범 '웰컴 백(WELCOME BACK)'을 발매한다.

드라마 첫 촬영 시작

배우 **고준희**가 MBC 새 수목극 '그녀는 예뻤다' 첫촬영을 시작했다. 극중 호텔리어 민하리 역을 맡았다. 제작사 측은 "고준희는 미모 뿐만 아니라 연기도 물이 오른 상태"라고 전했다. 오는 16일 첫 방송 예정이다.

연기의 진심? 그건 당연한 거죠

영화 '사도' 유아인

"허공을 가르는 저 화살은 얼마나 떳떳하냐." 영화 '사도'(감독 이준익)에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와의 갈등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헛헛한 심정을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한다. 과녁이 아닌 허공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는 화살이 되고 싶었으나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럴 수 없었던 비운의 인물. 배우 유아인(28)이 사도세자를 연기한 것은 필연 같은 우연이다.

"저라는 사람의 성향은 허공으로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 화살, 어디로 그어지는지 알 수 없는 붓처럼 말이죠." 유아인의 이 말은 그가 어떤 배우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유아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반항아' 혹은 '거침없는 청춘'의 이미지가 늘 떠오른다. 완득이와 깡철이처럼 그는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방향을 따를 생각이 없는 치기어린 청춘의 상징이었다.

'사도'의 사도세자도 유아인이 보여준 청춘의 연장선에 놓인 캐릭터다.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기대 사이의 엇갈림 속에서 반항하고 몸부림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그 싸움이 파멸에 이른다는 점은 전과 다르다. 유아인도 "사도야 말로 반항적인 인물"이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완득이'나 '깡철이'는 굉장히 현실 순응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어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사도는 진짜 '반항아'에요. 안될 싸움에 오기를 부린 거니까요."

이번 영화에서 유아인은 '베테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물에 접근했다. 그는 "감정 연기는 어렵지 않았다. 대신 심리를 표현하는 게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분노나 괴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감정 연기라면 그것은 배우이기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상황도 보여줘야 해서 특별했다. 등장마다

청춘의 연장선에 놓인 캐릭터
감정보다 심리 묘사 힘들었죠

서른 돼도 성격은 바뀌지 않아
배우의 과정 연기로 드러낼 것

감정적인 장면이 많은 만큼 평면적인 캐릭터가 될 위험도 컸다. 그래서 유아인은 매 순간 사도세자의 감정과 심리 묘사에 집중하며 연기했다.

영조를 향한 사도세자의 싸움은 누구나 알고 있듯 죽음이라는 슬픈 결말이다. 여전히 해석이 분분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유아인은 "합리화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정답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영화는 이 참혹한 비극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접근해 관객의 이해를 구한다. 청춘은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우거나 길들여지고 타협하는 과정이다. '유아인'이 그리는 사도세자는 바로 그런 청춘의 한 단면과도 같다.

한국 나이로 서른 살이 된 유아인은 어떨까? 그는 "서른이 된다고 '톡'하고 끊어지듯 성격이 바뀌지 않더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도 "나이에 대한 강박은 확실히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치기 어린 청춘을 보내면서 연기에 대한 생각은 보다 명확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이다.

"작품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해요. 배우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하면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착각이거든요. 진심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결코 완벽한 진심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배우라는 과정 위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결을 연기로 드러낼 거고요.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지에 따라 배우로서 성장할지, 아니면 그냥 살아갈지가 결정되겠죠."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흥미로운 주제, 아름다운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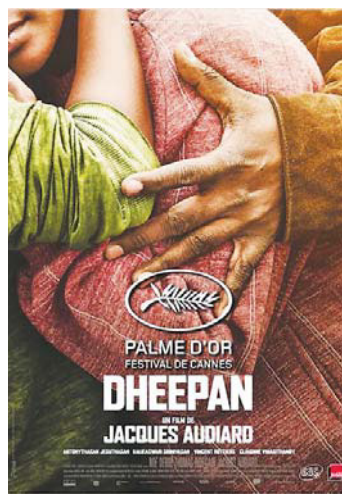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디판' 내달 국내 개봉

올해 제68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자크 오디아르 감독의 영화 '디판'이 오는 10월 국내에서 개봉한다.

'디판'은 유럽 난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프랑스로 망명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해 가짜 가족이 된 두 남녀와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렸다. 제목은 일면식도 없던 여자의 남편, 그리고 소녀의 아빠가 된 주인공의 거짓 이름을 뜻한다. 영화는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과정을 자크 오디아르 감독 특유의 스타일로 담았다.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프랑스 내 소수자들의 삶을 다룬 '예언자'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러스트 앤 본' 등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디판'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거머쥐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장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디판'은 올해 칸영화제에서 "흥미로운 주제, 무엇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라는 심사평과 함께 코엔 형제를 비롯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국내 개봉에 앞서 다음달 1일 개막하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먼저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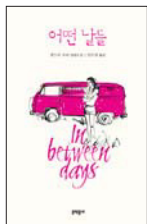
오늘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뭉클하면 안 되나요?

이봄/마스다 미리 지음·권남희 옮김

30대 싱글 여성의 일상과 고민을 담은 '수짱 시리즈'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만화가 마스다 미리의 에세이집 두 권이 출간됐다.

'오늘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는 마스다 미리가 32세에 쓴 초기 작품들을 모은 책이다.

마스다 미리는 '오늘도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를 통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화가 날 때면 속으로 그 화에 슬픔이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단한 화가 아니라는 뜻이다. 160쪽. 1만2000원.

'뭉클하면 안 되나요?'는 40대의 마스다 미리가 또래인 40대 여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마스다 미리는 이 책을 통해 설렘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40대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설렘과 감동 대신 더 많은 '뭉클'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276쪽. 1만4000원.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어떤 날들

문학동네/앤드루 포터 지음·민은영 옮김

플래너리 오코너상 수상 작가인 앤드루 포터의 '어떤 날들'이 출간됐다.

어떤 날들은 앤드루 포터가 두 번째로 출간한 작품이자 첫 번째로 내놓은 장편소설이다. 특유의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한 문체로 위기에 놓인 미국 중산층 가족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그렸다.

애니

문학과지성사/정한아 지음

2007년 '달의 바다'로 문학동네작가상을 수상한 정한아의 두 번째 소설집이다. 3년 만의 신간이며 소설집으로는 6년 만이다.

30대 중반이 된 작가가 서른 살부터 써온 8편의 소설을 수록했다. 20대에 발표한 작품과 다른 변화가 도드라진다.

그레이 1·2

시공사/E L 제임 지음·박은서 옮김

'그레이'는 2012년 출간돼 3개월 만에 3000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철저히 여자 주인공 아나스타샤 스틸의 시각에서 묘사했던 전작을 남자 주인공 크리스천 그레이의 시점으로 새롭게 재창조했다.

나는 왜 맨날 당하고 사는 걸까

북뱅/이사벨 나자레 아가 지음·정미애 옮김

'나는 왜 맨날 당하고 사는 걸까'는 일상 속에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특정한 한 사람, 바로 심리 조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파리에서 개인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관계를 지배하는 심리 조종자는 누구인지, 나아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가마우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

나무옆의자 / 이성아 지음

'가마우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는 제11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작이다.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향한 소라의 가족과 소라 가족을 위해 속죄의 삶을 사는 조총련계 재일교포 회자(하나코)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 외부인으로 철저히 배제된 채 살아가는 북송 재일교포 이야기다.

생명 그 자체: 40억년 전 어느 날의 우연

김영사 / 프랜시스 크릭 지음·김명남 옮김·이인식 해제

프랜시스 크릭은 1973년 고도로 발달한 외계 생명체가 DNA를 담은 일종의 씨앗인 미생물을 지구로 보냈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의 생명체가 됐다는 '정향 범종설'을 주장했다. '생명 그 자체'는 크릭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하고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자료를 모아 완성한 책이다.

TV 하이라이트

대머리라도 괜찮아

◆ MBC '다큐스페셜'

오후 11시15분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에 돌입한 대한민국. 탈모를 숨기고 발모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머리들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모에 대한 차별을 들여다본다. 연예계 대표 대머리 스타 홍석천은 처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할 무렵의 에피소드를 통해 탈모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연간 4조원에 달하는 탈모 산업의 세계도 낱낱이 공개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맥주 8잔을 원샷하고 겨울 바다에 입수하는 등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 20대 청년이 스튜디오를 찾아 친구를 말려달라고 부탁한다.

◆ SBS '힐링캠프-500인'

오후 11시15분

씨름판의 황제로 최초의 천하장사, 장사 타이틀만 47회를 획득한 이만기와 함께 '사위캠프'를 연다. 장모 최위득 여사와의 에피소드를 통해 생활의 지혜를 엿본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모델 김영광의 냉장고가 공개된다. 외로움을 잘 탄다는 그의 냉장고 안에서 의문의 쪽지가 발견된다. 미카엘과 샘킴은 김영광을 위한 '자양강장제 같은 요리'를 만든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일(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촌촌촌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다 잘될 거야 (재)	05:00 MBC 뉴스 05:10 MBC네트워크특선 사람, 산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닥터의 승부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0:30 마녀사냥 (재)	05:50 천기누설(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1:50 아궁이 (재)	05:25 집밥 백선생 (재) 06: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9:35 울지 않는 새 10: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5:00 더 프렌즈 in 돗토리 05:55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06:50 식신로드 07:50 수수께끼의 전학생 09:00 일요다큐 산 09:30 여행의 발견 10:00 Wonderful 일본 여행 11:00 WOMAN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사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 15:00 한국인의 밥상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역사저널 그날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 미니미니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00 MBC 뉴스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제23회 임방울 국악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2: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3: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20 두번째 스무살 (재) 14:50 문제적 남자 (재) 16:20 코미디 빅리그 (재)	12:00 수수께끼의 전학생 13: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14:05 히가시노 게이고 미스터리즈 15:00 해피라이프 16:00 Wonderful 일본 여행 17:00 일요다큐 산 17:30 여행의 발견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30년 특별기획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24:20 해외걸작드라마 닥터 후 시즌9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500회 위기탈출 올스타 넘버원 22:00 별난 며느리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5 MBC 다큐스페셜 24:15 MBC 뉴스 24 24: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24:50 스포츠 특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미세스캅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냉장고를 부탁해 23:00 비정상회담 24:30 박스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1:50 남심북심 한솥밥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4: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8:00 삼시세끼 정선편 19:40 리틀빅 히어로(재)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재)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명단공개	18:00 WOMAN 19:05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0:05 진짜 사랑 21:00 여성룰 22: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3:00 위자료 변호사 23:55 우로보로스

아우크스부르크 이적 구자철, 첫 경기 '훨훨'

12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아우쿠스부르크의 구자철(오른쪽)이 뮌헨의 티아고 알칸타라와 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뮌헨과 경기서 선제골 도움… 팀은 아쉽게 역전패

최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구자철이 데뷔전에서 팀의 첫 골을 도왔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는 구자철의 활약에도 후반 막판 2골을 허용해 지난 시즌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에 1-2로 역전패했다.

구자철은 12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정규리그 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 원정경기에 선발로 출전했다. 전반 43분 알렌산더 에스바인의 선제골을 도와줬다.

구자철은 바이에른 뮌헨의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일대일 패스를 주고받고 나서 곧바로 에스바인에게 공을 연결했다. 에스바인은 오른발로 강 슛을 날려 골을 터뜨렸다.

첫 골 직전까지 아우크스부르크는 바이에른 뮌헨에 일방적으로 공격을 허용했다. 볼 점유율에서도 3대 7로 밀리는 상태였다. 구자철도 좀처럼 공격지역에서 볼을 잡지 못했지만 한 차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친정팀 복귀를 자축했다.

구자철은 이날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범해 두 차례 프리킥을 허용하기도 했다. 특히 후반 19분 토마스 뮐러의 공격을 반칙으로 끊은 상황에서 나온 프리킥은 사비 알론소가 직접 슈팅으로 때렸지만 키퍼 선방에 막혔다.

구자철은 직전 소속팀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지난 시즌 리그 5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좀처럼 선발출전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두 차례 교체 출전에 그치고 있었다.

이에 지난달 말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을 결정했다. 구자철은 이미 2012년 2월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돼 1년 반 동안 뛰면서 정규리그 36경기 동안 8골을 터뜨린 바 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미 뛰고 있던 한국인 선수 지동원, 홍정호와의 호흡도 기대를 모았다.

지동원은 이날 경기 후반 31분 라울 보바디야와 교체투입 돼 왼쪽 측면 공격을 맡았다. 당초 선발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아우크스부르크의 또다른 한국인 선수 홍정호는 경기 시작 전 몸 상태 이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의 교체투입 직후인 후반 32분 바이에른 뮌헨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어 경기종료 직전인 후반 44분 토마스 뮐러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해 역전패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어깨 수술 류현진 "재활 잘되고 있다"

최근 상체 훈련 시작… "언제 공 던질 수 있을지는 몰라"

어깨 수술을 받은 재활 중인 류현진(28·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재활이 잘되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미국 지역 신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과의 짧은 인터뷰를 실었다.

류현진은 인터뷰를 통해 "재활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한 시즌을 통째로 쉬게 됐지만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해 2년 연속 14승을 거두며 다저스 3선발로 안착했다. 하지만 올해는 단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고 지난 5월 22일 수술대에 올랐다. 팔꿈치 수술보다 성공확률이 낮은 어깨 수술을 받게 돼 우려가 컸다.

류현진은 "나쁠 것도 절망할 것도 없다"며 "전체적으로 현재 매우 좋은 상태다. 마음도 편안하고 통증도 없다"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류현진은 두 시즌 동안 28승 15패 평균자책점 3.17을 기록했던 때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술 후 하체 훈련에 전념하던 류현진은 최근 어깨 근육 강화 운동 등 상체 훈련을 시작했다. 다만 아직 공을 던지는 단계는 아니다. 류현진은 "언제 공을 던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트 레지스터는 "다저스는 류현진이 내년 스프링캠프가 시작할 때 정상적으로 팀에 합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병호 기자

추신수, 3경기 연속 안타·11경기 연속 출루

타율 0.255 유지 강정호는 결장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3경기 연속 안타와 11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추신수는 오클랜드 왼손 선발 션 노린의 시속 134㎞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쳤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3회에는 노린의 커브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이어 5회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노린의 시속 142㎞ 컷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우중간 가장 깊숙한 곳에 떨어지는 2루타를 쳐냈다.

지난 11일 시애틀 매리너스전부터 시작한 안타 행진은 3경기로 늘었다. 연속 경기 출루행진은 지난 2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부터 11경기째 이어졌다. 다만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작성에는 실패했다.

추신수는 7회 볼넷을 골라 이날 두 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시즌 타율은 0.255를 유지했다.

텍사스는 5-3으로 패했다.

한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는 같은 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 결장했다. 이날 경기는 피츠버그가 10-2로 승리, 2연승을 달렸다.

/장병호 기자

국제체조연맹(FIG) 2015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친 손연재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연재는 독일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최종 11위에 올라 2016 리우올림픽 출전권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손연재, 잇따른 실수에…

세계선수권대회 아쉬운 11위 리우 올림픽 출전권 확보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아쉽게 11위를 차지했다.

손연재는 지난 12일(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포르쉐 아레나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2015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개인종합 결선에서 곤봉(18.233점)-후프(18.166점)-볼(17.483점)에서 선전했다. 그러나 리본에서 크고 작은 실수로 16.116점으로 무너졌다. 4종목 합계 69.998점으로 전체 24명의 선수 중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메달은 러시아의 야나 쿠드랍체바(75.632점)가 가져갔다. 쿠드랍체바는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같은 러시아 선수인 마르가리타 마문(74.766점)이 뒤를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멜리티나 스타뉴타(72.132점·벨라루스)가 동메달을 따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전인 동시에 전초전과 같았다. 손연재는 올림픽 출전권 15장이 걸려 있는 이번 대회에서 상위 15위 안에 무난히 이름을 올리며 자동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로써 손연재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2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메달 입상에 실패하며 심판진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기회를 놓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잇따른 실수에 손연재는 '키스 앤드 크라이 존'에서 볼 점수를 기다리던 도중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코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장병호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6	4				
	1		9					
9	3	4		7				
		1			7	6	9	
			8	5	9			
	9	8	3			2		
				6		7	2	9
					3		6	
				8	4		5	3

		9	2				8	
8			3		4		7	6
	7		9				1	
	8	5		7				
			1		6			
				8		6	2	
	5				3		9	
2	4		7		1			8
	9				5	2		

스도쿠 정답

5	2	7	6	4	8	9	3	1
8	1	6	9	3	5	4	7	2
9	3	4	1	7	2	5	8	6
3	5	1	4	2	7	6	9	8
6	4	2	8	5	9	3	1	7
7	9	8	3	1	6	2	4	5
4	8	3	5	6	1	7	2	9
1	7	5	2	9	3	8	6	4
2	6	9	7	8	4	1	5	3

5	6	9	2	1	7	4	8	3
8	1	2	3	5	4	9	7	6
3	7	4	9	6	8	5	1	2
6	8	5	4	7	2	1	3	9
9	2	7	1	3	6	8	4	5
4	3	1	5	8	9	6	2	7
1	5	8	6	2	3	7	9	4
2	4	6	7	9	1	3	5	8
7	9	3	8	4	5	2	6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Working around the clock is a must to get ahead

A: Are you working late again?

B: Yeah, I have a deadline tomorrow afternoon.

A: Well, don't work too hard. You might burn yourself out!

B: They say that **working around the clock is a must to get ahead.**

A: Well, don't forget me when you get too far ahead!

B: Lol. How can I forget my BF?!?

A: Just don't forget the little people!

B: lol I'll buy you lunch every day!

A: You better. :)

성공하려면 24시간 내내 일해야 해

A: 또 늦게까지 일해?

B: 응, 마감이 내일 오후야.

A: 쉬엄쉬엄 해. 그러다 쓰러질라.

B: **성공하려면 24시간 내내 일해야 한다**고 하잖아.

A: 그럼, 너~무 성공한 다음에 나 잊지 마.

B: ㅋㅋㅋ 내 절친을 어떻게 잊겠니?

A: 돈 없는 사람들 잊지 말라고!

B: ㅋㅋㅋ 맨날 점심 사줄게

A: 고래야쥐 :)

* lol: 웃음을 표현하는 인터넷 속어로 laugh out loud의 약어
* BFF: best friend forever 절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갑자기 난폭해진 남편… 사주에 변고가 있나요?
비명횡사한 시동생 위해 천도재를 올려보세요

늦바람 남자 68년 10월 16일 양력 14시

Q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58세 10월 16일 양력 오후 2시)이 갑자기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 안 하던 외박도 합니다. 과거부터 그래 왔다면 벌써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단념을 하고 살았겠지만 안 하던 짓을 하니 이게 웬일일까 합니다.

가끔 '사주 속으로'에서 선생님 말씀 중에 남자 사주에서 바람이나 폭력을 행사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상태의 운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또는 한 달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비명횡사한 시동생의 영혼이 변고를 내고 있는 건지 염려스럽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A 남자의 경우 부인은 육신(六神)에서 정재(正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부인이나 올바르게 취하는 재물을 뜻함)로 나타나는 법인데 생일지에 정재가 없다면 생월주(生月柱:태어난달)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귀하의 부군은 부부궁에 원진살(怨嗔殺:원수 지내듯 지내지만 막상 헤어지지도 못 하고 사는 것)이 작용하고 형살(刑殺:형벌을 받듯이 흉함)이 가중되어 있어서 한시적으로 변고가 생길 수가 있으나 누구나 사주 안에 살(殺)없는 사람이 없고 운에서 흉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다들 이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흉살에 대해 신경이 쓰인다면 흉살이나 삼재에 대해 부적이나 굿을 권장하는 것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비명횡사한 시동생에 대해서 그 영혼을 잘 해 보내는 49재나 천도재를 제대로 안한 결과라고 봅니다.

천도재는 49재를 지내고난 뒤라도 무엇인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사정이 있을 때 영가를 천도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 올리는 재를 말합니다. 천도재는 영가에게 부처님의 법을 들려주는 의식이므로 영가를 인도해 스스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도록 권하고 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영가 자신이 업장(業障)을 소멸함으로써 죄업의 과보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유가족이 영가를 위해 재를 지내거나 선업을 지으면 이것이 죽은 이의 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가족도 재를 통해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재계를 지키게 됨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짓게 됩니다. 좋은 날짜를 잡아 시동생의 천도 재를 올리도록 하시면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4일 (음 8월 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모든 부귀영화가 내 것입니다. **60년생** 지금까지 해왔던 자세로 계속 유지하세요. **72년생** 업무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84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됩니다.

49년생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61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73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85년생** 인간관계에서 항상 겸손하세요.

50년생 모든 일에 자중하세요. **62년생**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윤도 남지 않게 됩니다. **74년생** 건강관리에 신경쓰세요. **86년생** 가는 곳 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1년생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63년생**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하세요. **75년생** 일은 풀리지 않고 얽혀만 가게 됩니다. **87년생** 주변에 휩싸이지 마세요.

52년생 조그만 소망은 이루어지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4년생** 주위사람들 모두가 귀하의 편을 들어줍니다. **76년생** 재물운이 길합니다. **88년생**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53년생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65년생** 현재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다른 일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89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54년생 건강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66년생** 인간관계가 많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8년생** 안정된 생활이 이어질 것입니다. **90년생** 칭찬이나 혹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년생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깁니다. **67년생**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주변의 사람들과 의논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91년생**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56년생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하도록 하세요. **68년생** 친척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합니다. **80년생**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92년생** 일에 중심을 잘 잡으세요.

57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69년생** 약점이 들어날 수 있습니다. **81년생**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93년생** 금전, 직장 이성운 모두 불리합니다.

58년생 조심 조심 또 조심하세요. **70년생** 말 실수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의외의 일들을 걷게 될 것입니다. **94년생** 지금까지의 삶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59년생 사소하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71년생** 의외의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3년생** 금전운은 무난합니다. **95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서유기·마이텔에 영상산업 미래 있다

양경미의 문화톡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영상콘텐츠산업의 환경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웹 콘텐츠와 1인 미디어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최근 '신서유기'나 '마이텔'(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인기몰이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신서유기'는 나영석PD가 1박2일의 원년멤버였던 강호동, 은지원, 이승기, 이수근을 캐스팅해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고전 서유기를 예능으로 풀어낸 영상물이다. 특히 인터넷 전용 영상물로 담아낸 웹 콘텐츠다. KBS 시절에는 국민방송 '1박2일'을, tvN에서는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시리즈로 케이블TV의 지형을 바꿔 놓은 그가 이번에는 '신서유기'로 새로운 방송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신서유기'는 손익분기점인 2000만 명의 조회수를 돌파했다.

'신서유기'는 영상콘텐츠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세상에서 영상물의 경계가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PD는 '신서유기'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플랫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웹 예능의 새 시대를 예고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굳이 텔레비전이나 극장을 통해서 영상물을 봐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웹 콘텐츠가 기존의 영상콘텐츠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스마트폰은 또 1인 미디어 시대를 열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의 확산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가능했다. 이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콘텐츠, 대중이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거액을 벌어들이는 스타가 될 수 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스마트폰에 시청자를 빼앗기고 있다. 결국 지상파 방송도 1인 미디어에서 인기를 얻은 웹 콘텐츠의 패턴을 따라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MBC의 '마이텔'은 다음팟의 본방송을 편집한 재방송이다. 그리고 다음팟은 아프리카TV의 1인 방송 콘셉트를 따온 것이다.

물론 새로운 흐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웹 콘텐츠는 규제가 느슨한 탓에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자막 사용으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영상콘텐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영상콘텐츠산업계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신경영전략을 세워야하며 정부 또한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과 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

'국감 출석' 삼성물산 사장 시원한 대답 들을 수 있을까

기자 수첩
임 은 정
<산업부>

올 상반기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산정에 대한 일부 주주와 전문가들의 지적이 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 삼성물산이 이달 초 출범했지만,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주들의 주장과 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이유와 과정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허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최 사장은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이처럼 합병과 관련된 이슈는 쉽게 가라앉긴 힘들어 보인다.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4일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심문요지는 회사 합병 관련이다. 또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이사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홍 본부장, 최 사장, 박 이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 전후로 언론을 통해 만날 수 있던 화제의 인물들이었다.

국민연금은 SK C&C와 SK의 합병안에 대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찬반여부를 위임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를 통해 직접 찬성을 결정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총을 앞두고,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를 직접 결정하기 곤란하고 SK C&C와 SK 합병안 경우처럼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투자위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국회에서 합병안에 대한 모든 의혹이 시원하게 풀리길 기대해본다.

社 說

공무원은 임금피크제 안하나

정부의 강력한 채근에 힘입어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사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그룹과 SK그룹 등 거대재벌이 이미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 LS 등 중견그룹도 합류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는 등 금융계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금호타이어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문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엇갈려 협상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듯 민간경제계에서는 어느새 임금피크제가 '유행'이 돼 버렸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아무말도 않고 있다. 지난 8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지만, 공무원 봉급인상계획만 담겨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공무원부터 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대기업엔 임금피크제가 큰 의미는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대개 만55세 이후인데, 대기업에서는 그 나이까지 다니는 직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업은 직원이 50대 초반만 되면 어떤 이유로는 이들을 내보낸다. 그러니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는 '정년 채우기'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니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는 큰 효과도 의미도 없다. 오히려 법에 규정된 정년까지 다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이 이미 1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이제 '노동개혁'을 위한 강공을 펼칠 태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우선 이런 의문에 대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명절 선물·여행 준비 "주의 당부"

소비자 119

택배, 일주일 여유 둬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급증하는 택배·여행·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전후 해외구매를 통해 선물을 준비하거나 택배를 통해 선물 등을 보내려는 소비자, 명절기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시군구 관광과나 여행정보센터와 여행불편처리 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구매대행 업체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소비자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예진 기자 green@

인 사

◇서울신문 △이사대우 승진 ▷편집국장 오승호
◇해양수산부 △고위급 심판관 전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박영선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인구정책실장 이동욱 △국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강병구 △고위공무원 승진 ▷통상협력국 심의관 이민철
◇제천시 △5급 승진 ▷대학협력팀장 김주철 ▷교육지원팀장 심남섭 ▷문화재팀장 이장규 ▷시설조성팀장 박대기 ▷경리팀장 원용식 ▷민원허가팀장 김태순 ▷안전총괄팀장 남경주 ▷지역경제팀장 조완형 ▷통합조사팀장 김영진 ▷성장산업팀장 황규원 ▷동물방역팀장 김병철 ▷지역관리팀장 이봉학
◇국토연구원 ▷감사실장 장인용 ▷청사건축이전추진단장 전준호 ▷기획경영본부 연구지원센터장 오경근 ▷기획경영본부 경영지원센터장 김경동 ▷기획경영본부 연구조정팀장 김중은 ▷기획경영본부 인재개발팀장 박동신 ▷기획경영본부 예산기획팀장 이성식 ▷기획경영본부 대외협력팀장 박순업 ▷기획경영본부 총무관리팀장 이강식 ▷기획경영본부 재무회계팀장 김성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장 오재림 ▷이과대학장 이진호 ▷교무처장 박동곤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천충일 ▷입학처장 조남기 ▷학생처장 강혜경 ▷기획처장 오중산 ▷대외협력처장 서수경 ▷관리정보처장 천하봉 ▷창업보육센터장 김규동 ▷숙명미디어센터장·숙대신보사주간 안민호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장 조정인 ▷한국어교육센터장 김경령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원장 고승의 ▷아시아여성연구소 간사 이숙정

부 고

▲김복자씨 별세, 강병주(삼성카드 상무)씨 모친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 02-3410-3151
▲이정호씨 별세, 병욱(한국마그넷 실장)·병우(YTN 울산지국 촬영기자)씨 부친상 = 11일, 삼성서울병원 3호실, 발인 14일
▲박경희씨 별세, 김현숙·인숙·미선·미숙·화숙씨 모친상, 조용준(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김융식 김정한 한희철 강문기씨 빙모상 = 12일 오전 0시, 충남서산의료원 장례식장 수국실, 발인 14일 오전 9시 ☎ 041-689-7444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할 때 까지

당신의 아들딸이 되는 효나누미

"정성을 다해 내 마음까지
잘 헤아려주니 참 행복합니다"

"자식들도 하기 힘든 일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치매노인장기요양
서비스까지 있으니
참 힘이 되네요"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신의 아들 딸이 됩니다"

치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혜택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 **현금급여** : 도서 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원 지급
- **시설급여** : 시설급여 서비스

급여이용 본인부담

- **일반대상자** : 시설20%, 재가 15%(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50%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